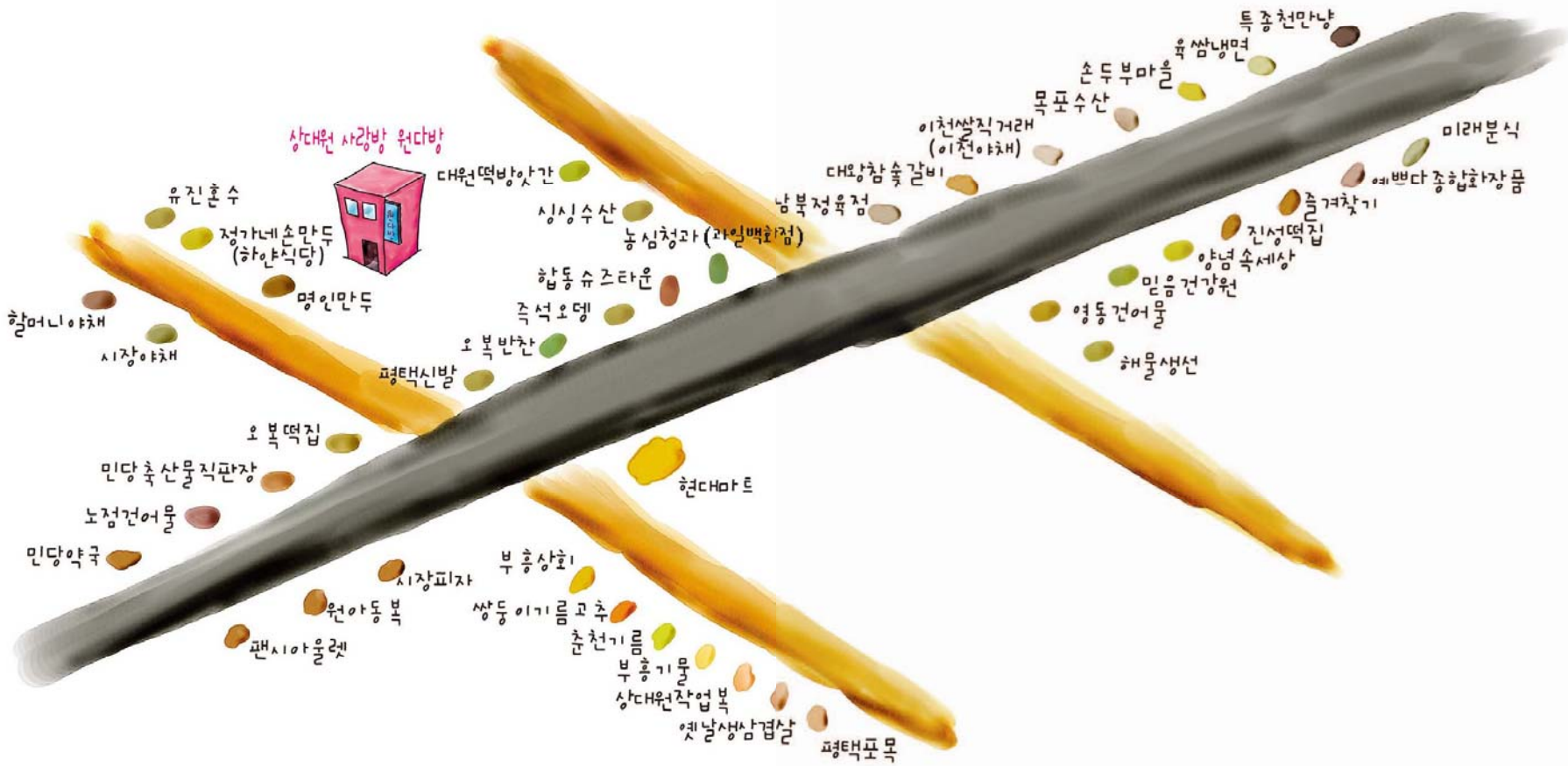






#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 목차

- 02 포토에세이
- 04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지도
- 06 목차
- 08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12** 제 1 부
  - 14 사업개요
  - 16 한 눈에 보기
  - 18 문화 공동체 '상대원시장' 만들기

- 상대원시장의 역사와 발자취 **20** 제 2 부
  - 22 한 눈에 보기
  - 24 역사와 발자취 1
  - 26 역사와 발자취 2

- 공공시각미술 **28** 제 3 부
  - 30 사업개요
  - 32 한 눈에 보기
  - 34 사업내용

- 공공컨텐츠예술 **98** 제 4 부
  - 100 사업개요
  - 102 한 눈에 보기
  - 104 사업내용

- 라디오방송국 **126** 제 5 부
  - 128 사업개요
  - 130 한 눈에 보기
  - 132 사업내용

- 또 하나의 책,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182** 제 6 부
  - 184 책소개
  - 186 저자 인터뷰

- 작업일지 **188** 제 7 부
  - 190 사전준비
  - 192 송년행사
  - 196 상대원시장 사람들 이야기
  - 204 상대원 프로젝트 그 후
  - 208 언론에서 본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 212 연락처 "여기는 상대원시장입니다"

프로젝트 북을 펴내며

## 상대원시장을 통해 문화공동체를 꿈꿉니다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상가·시장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골목길 프로젝트인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2006년)'를 시작으로, 아파트 프로젝트인 '풀장원장(2007년)', 공단 프로젝트인 '콩닥콩닥 예술공단(2007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된 장소인 '상대원시장'은 지난 1970년대에 상대원 공단이 형성되면서 상대원 공단 주변에 들어서게 된 마을과 함께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만큼 상대원 시장은 성남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는 등 교통이 발달하고 신도시인 분당이 들어서면서, 상대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도시의 발달과 함께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의 일부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재래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겪어내고자 기존 재래시장에 상가(핵심점포)를 들여 상품구색을 맞추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상대원시장은 그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대원시장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된다면 그 씨앗으로 성남시의 모든 재래시장이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의 모든 재래시장이 문화공동체로 거듭나는 꿈. 그 꿈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은 지난 9월 29일 추석행사를 시작으로 그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방송국'도 개국과 함께 인터넷라디오방송을 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역 예술가들이 상대원시장 및 각 점포를 돌며 상대원시장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상대원시장 상인과 상의해 도화지를 채워 나갔습니다. 곧 이어 놀토공작, 켈트 배움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원시장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상인들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때 마다 '홀연히' 나타나 이를 중재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박선영(박복태)님, 공공사작미술 프로젝트팀의 김영우님, 성남문화재단의 김성호님이 그들입니다. 박선영님, 김성호님, 김영우님은 프로젝트 내내 상대원시장의 곳곳을 누비며 문화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 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대원시장을 상대원 사람들의 정감이 넘쳐나는 시장이 되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이들보다 더 선명하고 따뜻하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게에 대어대자 나는 찍지말고 이쁜 우리 손주를 찍으라며 손주 자랑에 뿌듯해 하시는 오복떡집의 박갑식님, 손님과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구수한 목소리로 상대원 시장의 역사를 전해 주신 팽택신밭의 손용일님, 꼬마시장에서 '오픈세일' '대박세일' '완전세일' 을 외치며 주변사람을 웃겨 더 이상 촬영할 수 없도록 만든 이수진 어린이...특히 작업할 때 마다 지저분해진 원다방의 계단을 말끔히 정리해 주시거나 놀토공작 때마다 요란스러운 아이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묵묵히 잡아주신 명인만두의 조순희님은 이번 프로젝트의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위해 상인 및 지역주민,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사이 어느새 수 개월이 지났고, 지난 해 12월 29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 등 프로젝트 관계자 및 성남문화재단 및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프로젝트의 종료를 겸해 송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은 사람들이 사랑방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큰들마루의 이상훈님은 사랑방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석사진에 담고 그 아래 새해소망을 적어 놓게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나눈 '정' 을 기억하기 위해서랍니다.

해가 넘어가니 질 무렵 예술가 등 프로젝트 관계자 및 성남문화재단 및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떡과 복조리를 들고 상대원 시장 내 점포 하나 하나를 찾아 이를 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때까지 생업 때문에 이 행사를 참석하지 못한 상인들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이 날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즉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그 종료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상대원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이 '상대원 원다방 신나는 방송국'의 바통을 이어 받아 '원다방' 에서 진행되었던 인터넷라디오방송, 켈트배우터 등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다방 역시 상대원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의 모임 겸 쉼터로 계속 그 꽃을 활짝 피울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원 시장' 은 다시 한 번 힘차게 뿔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의 이번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열성적으로 나서주신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이, 이제 상대원시장을 다시 살려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서로가 확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상대원시장' 을 통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의 내일을 봅니다.

신나는 상대원시장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1부



## 사업개요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06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한편 개발의 대상에서 한걸음 비켜 있는 마을들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담아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를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의 5개 유형 공간으로 구분하고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순차적인 유형별 사업, 즉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골목길(2006, 태평4동-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아파트(2007, 은행2동-나눔이 즐거운 Art-Pool, 풀장환상), 공단(2007, 상대원1동-콩닥콩닥 예술공단) 등의 시범사업이 그것입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은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골목길형(1차/2007, 2차/2008,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꿈꾸는 아이들), 아파트형(1차/2008, 은행주공문화배움터)을 진행했고, 공단형은 기업형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전환되어 기업형(1차/2008, 기업의 문화공헌)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성남시 내 공간유형으로 구분한 5개 유형 중 시장과 상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시장과 상가에 대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 유형은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 상가 결합형'으로 통합 되었고 '문화예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애초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상대원시장에서 시장, 상가에 대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원시장으로 사업대상자가 결정된뒤 성남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기획하고·실행할 개인 및 업체를 모집해 창의적인 기획안으로 응모한 도시의빛과색(공공시각미술), 큰뜰마루(공공컨텐츠예술), 바셀린프로젝트(인터넷라디오방송)를 최종 기획·실행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뒤 이 기획·실행팀들은 성남문화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상대원시장 상인 및 주민들에게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기초를 잡아주는데 애썼습니다.

먼저 도시의빛과색은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옐로우 트롤리 택시, 등너머등, 커뮤니티콘, 골목길, 상징조형물 설치, 도로포장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으며, 큰뜰마루는 추석행사, 길거리 건강검진, 놀토공작, 꼬마시장, 어린이라디오스타, 켈트배움터, 줌마디제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바셀린프로젝트는 책 읽어 주는 시장, 노래 들려 주는 시장, 으쓱으쓱 월요일, 상대원 홈쇼핑, 옛날 옛적에, 상대원 수다방, 사랑방클럽이 야기, 상대원 드라마,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있는 곳, 누님 뇌우스, 인터넷 라디오 공개방송과 같은 프로그램 들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된 '상대원시장프로젝트'가 마침내 지난 해 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은 인터넷라디오방송을 지속 프로젝트 정예 지원하기로 했으며, 큰뜰마루 역시 함께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통해 켈트 배움터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6년

태평4동 -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2007년

은행2동 - 나눔이 즐거운 Art-Pool, '물장환상'  
상대원2·3공단 - '공닥공닥 예술공간'  
태평4동 - 어린이기자단 '꿈꾸는 아이들'

2008년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꿈꾸는 아이들'  
물장환상2 '은행주공문화배움터'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藝·社로운 만남'

2009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중 인터넷라디오방송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중 킬트배움터  
이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펼쳐질 예정임.

## 문화공동체 '상대원시장' 만들기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 재래시장은 대형 할인점과 인터넷쇼핑몰에 그 자리를 본격적으로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2002)'을 통해 재래시장의 위기를 타파하려는 후속조치를 취하지만 사업내용이 주로 환경개선이나 일시적 이벤트에 국한됨으로써 재래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을 제정해 재래시장에 보다 현실성 사업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남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에서 두 유형으로 분리 검토되었던 시장형과 상가형을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상가와 시장이 혼재 되어 있는 등 오늘날 재래시장의 변화를 인정하고 시장형과 상가형을 결합하는 현실적인 문화정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원시장은 대형상가(상대원플라자)를 중심으로 재래시장의 점포들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상대원플라자는 다른 대형상가가 기존 재래시장을 잠식해나가는 방식으로 변모되어가는데 비해 오히려 시장에서 중심점으로서 활동하며 상호 공존의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원시장은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을 주소비자로 삼아 상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으로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의 근접거리 소통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원시장이 지역정서에 기반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로 형성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와 함께 상대원시장은 현재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느슨한 형태의 상인회 성격의 움직임이 형성되어 가고 있어 향후 상인회 조직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상대원시장의 특징은 문화, 예술을 통해서 시장 상인들과 더불어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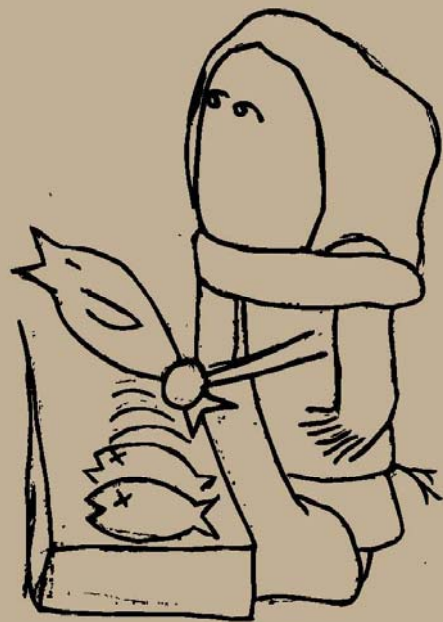


상대원시장 입구에서 바라본 상대원 시장

신나는 상대원시장

# 상대원시장의 역사와 발자취

2부



# 한눈에 보기

## 상대원동의 역사와 발자취

1914년

보통골, 중간말과 근내면의 사기막골을 합해 상대원리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

1973년

성남시의 탄생과 함께 상대원동으로 명명됨

1974년

상대원동에 공단이 형성됨

1975년

상대원 1·2동으로 분동

1970년대

상대원시장이 형성되어 이 주변부로 부도심이 형성되기 시작

1980년대

재래시장 정비 사업으로 재래시장이 철거되고, 상대원시장 내 건물(상대원플라자의 전신)이 들어섬

1989년

중원구에 편입

1990년

상대원 1동이 다시 1·3동으로 분동

2007년

상대원플라자 내 현대직판장·쇼핑센터, 현대 아울렛 들어섬

2008년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시작

2009년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지속 진행 중

# 역사와 발자취 1

## 상대원동 이야기



희망대공원에서 바라본 상대원 | 사진제공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면적 7.65km<sup>2</sup>, 인구 7만 2,235명(2009.1)입니다. 겸단산 줄기의 남쪽 구릉지를 차지하여 지대가 높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 일대는 본래 보곡동(普谷洞)이었는데, 송언신(宋言愼)의 서원이 있는 곳(상대원)과 이집(李滉)의 서원이 있는 곳(하대원)을 구별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대원(大院)이 있어 위쪽을 상대원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하대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지역이었습니다. 대야원(하대원동) 위쪽에 있으므로 웃대원 또는 상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보통골, 중간말과 근내면의 사기막골을 병합하여 상대원리라고 하고 중부면에 편입시켰습니다.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어 상대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1975년 상대원 1·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9년 중원구에 편입되었습니다. 1990년 상대원 1동은 다시 1·3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인 이 동은 현재 행정동인 상대원 1~3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동에는 중원경찰서, 중원구보건소, 성남자동차검사소, 폐기물사업소 등이 있으며, 대웅제약, 동양정밀공업, 동원정밀, 샤프(주), 동원산업, 대한교과서(주) 등이 있습니다. 약진로와 순환도로를 통하여 물자를 운송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지역과 주거밀집지역으로 복합 구성된 이 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상대원 1동에는 제2공업단지와 제3공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상대원시장을 중심으로 부도심적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풍단 뒤편 보통골에는 500년 이상 된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나무 아래가 의적 임피정의 소굴이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사기막골과 보통골 2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고, 동쪽에 광주시로 이어지는 고개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李滉)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다가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넘어면 궁궐이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 이 계신 한양 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 떠났다 하여 이배재(二拜臺)라고 합니다.

## 역사와 발자취 2

# 상대원 시장, 그 30년을 추억하다

“끼니조차 거르며 장사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손님이 많았었지.”라며 평택신발의 손용일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대원 1, 2, 3공단 입주업체들의 급여일은 대개 10일이었는데 이날만 되면 공단 근무자들은 퇴근길에 으레 상대원 시장에 들러 그 동안 봐 두었던 옷가지며 신발, 찬거리 등을 샀습니다. 덕분에 그리 넓지 않은 상대원 시장의 도로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이며 우리순대국, 쌍둥이 기름고추, 평택신발 등 몇몇 점포의 상인들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점포들이 동지를 틀 무렵인 30년여 전, 상대원시장은 상대원동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부(現 상대원플라자 자리)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 상대원 1, 2, 3공단 입주업체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대개 상대원동에서 보급자리를 꾸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저지 역시 공단과 함께 발달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란, 성호, 중앙시장과 함께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십 수년을 번영하던 상대원 시장은 80년대에 진행된 이른바 ‘재래시장정비사업’으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노점을 쫓아내고, 2층 짜리 재래시장 건물(現 상대원플라자)이 들어섰지.”라며 손용일님은 그러나 그와 같은 준비의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원 시장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노점을 쫓아냄으로써 재래시장 특유의 풍경이 사라진데다가 2층 짜리 재래시장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 점포와 재래시장 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비(?) 직후에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신도시(분당) 입주가 본격화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상대원시장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상대원 시장에 왜 오겠습니까? 높아진 소비자의 소비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란시장처럼 재래시장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라며 손용일님은 자동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상대원동의 주민들이 상대원시장 대신 분당에 들어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써 지은 2층 짜리 재래시장 건물은 상대원시장의 ‘애물단지’가 되었고,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재래시장 건물이 이렇다 보니 상대원시장은 (점포들만으로는) 상품구색이 맞질 않아 손님들의 발길을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현재의 현대직판장·쇼펍센터, 현대아울렛이 재래시장 건물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인근 점포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이들 슈퍼마켓의 판매상품들이 다소 중복되어 일부 점포 상인들의 굵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지만 현대직판장·쇼펍센터, 현대아울렛이 들어섬으로써 상품구색이 갖춰진 상대원시장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용일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원시장이 전통적인 시장인데,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구먼”**

신나는 상대원시장

# 공공시각미술

3부



## 사업개요

## 공공시각미술

## 기획의도

우리는 상대원시장이라는 공간 그 자체를 예술로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공시각미술은 상징조형물 설치, 도로포장, 골목길 환경개선과 같은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그중심에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 이번 프로젝트의 거점 공간으로 명인만두 3층에 있습니다.
- 옐로우 트롤리 택시 - 작가 에밀 고님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퍼포먼스를 기획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진행했습니다.
- 동너머등 - 23명의 작가들이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상점을 상징하는 조명을 만들어 직접 상점마다 설치했습니다.
- 커뮤니티콘 - 작가 오규용, 정선주님이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상점을 상징하는 그림과 텍스트를 마치 간판처럼 만들었습니다.
- 골목길 - 경원대학교,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평택골목의 양쪽 골목 건물벽면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 상징조형물 - 작가 안성희님이 '나는 상대원 시장에 갑니다' 라는 상징조형물을 민당약국 건물에 설치했습니다.
- 도로포장 - 상대원시장의 중심도로에 미끄럼 방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도전과제

공공시각미술 프로젝트의 특성상, 지주(혹은 건축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민주적 예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꽤 복잡하고 지루한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 진행결과

공공시각미술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만한 것은 '소통'입니다.

예술가들은 상징조형물 설치, 도로포장, 골목길 환경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등너머등, 커뮤니티콘처럼 1:1 소통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도 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술가들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상징조형물 설치, 도로포장, 골목길 환경개선과 같은 일들은 수행해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했으며, 등너머등이나 커뮤니티콘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점포마다의 특성을 살려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술감독 안성희(도시의빛과색)



육효준(도시의 빛과색)



김영우(도시의빛과색)



이종필(성남문화재단)



이상주(다큐멘터리 전문 사진작가)



# 공공시각미술 프로젝트

## 한눈에 보기

### 6월

10-18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공공시각 미술, 공공컨텐츠예술, 라디오방송국)안 연구  
23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안 최종 확정 및 공고

### 8월

26 하드웨어, 인터넷라디오방송 부문 프로젝트 기획팀 최종 계약

### 7월

24 프로젝트 기획안 공모에 따른 심사 결과 발표에 따라 도시의빛과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4-8.26 도시의빛과색과 성남문화재단간 실행기획안 협상

### 9월

4 프로젝트 현장 홍보용 플래카드 6종 상대원 시장에 설치, 프로젝트 리플릿#포스터 완성  
5 1차 옐로우트roller택시 퍼포먼스  
29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오픈

### 11월

7 3차 옐로우트roller택시 퍼포먼스  
14 골목길 환경개선관련 상인동의를서 수령  
20-23 골목길2 진행  
20-27 동네머뭇 설치  
22 커뮤니콘2 진행 설치  
24 골목길1 진행  
26-27 커뮤니콘1 진행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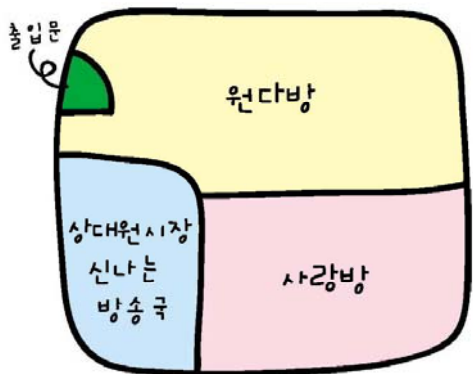
### 10월

3 옐로우트roller택시 퍼포먼스 2차  
10 도로포장과 치안막 관련 상인동의를서 수령  
10-11.20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인테리어 공사 진행  
29 상징조형물과 도로포장 시안 관련 상인 투표

### 12월

5 4차 옐로우트roller택시 퍼포먼스  
14 상징조형물 '나는 상대원시장에 갑니다' 설치  
16 도로 포장

#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은 상인과 주민이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원다방, 공공컨텐츠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회의가 진행될 사랑방,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거점공간의 이름을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상대원동에서 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상대원동 사람들의 가슴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원다방을 함께 추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상대원시장 안에 적합한 공간을 찾아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공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아, 우리는 상대원시장 상인회의 김국남 회장의 도움으로 명인만두, 오복반찬, 평택신발3층 기존 상대원장학회 사무실에 거점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상대원 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거점공간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평택신발(왼쪽아래), 오복반찬(오른쪽아래) 3층에 위치한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그렇게 해서 지난 8월 27일, 이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건물주인 임경임님과 공공시각미술팀 안성희 감독 사이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후 공공시각미술팀은 이 공간을 다매체 복합 문화공간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그 작업은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을 원다방과 사랑방,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등 총3개 공간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먼저 원다방에는 상인들이 모여 답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 등 설치됐고, 사랑방에는 공공컨텐츠예술 프로그램(각종 회의, 놀토공작, 주부컬트모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전기온돌과 커다란 테이블이 설치됐고,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스튜디오에는 방음벽과 각종 방송장비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은 지난 9월 29일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고사, 간판 점등식,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둘러보기로 이어진 오프닝 행사에서 상대원시장 상인회 김국남 회장은 "유세차~"로 하늘과 땅에 이빈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대원 시장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뒤를 이어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지관근 시의원, 유근주 시의원, 최홍수 상대원 3동 동장 등이 고사장에 절했습니다.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지관근 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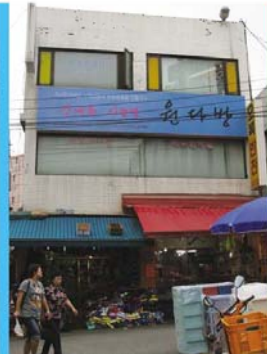
김국남 상대원시장 상인회 회장



▲ 공사중인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내 설치된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스투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는 박선영(박복태), 노자환, 박미영(박복부타)



상대원시장 입구에서 바라본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의 간판



상대원플라지에서 바라본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최홍수 상대원3동장, 유근주 시의원(왼쪽부터)

오픈식 후 상인들과 우리들은 이곳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갔고, 종종 차와 함께 담소도 나누며 상대원동이라는 문화 공동체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은 상대원동에서 명실상부한 교류와 매개,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공시각미술  
**옐로우 트롤리 택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6:00~19:00



박도일(왼쪽)님이 한 아주머니의 장바구니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금요일 상대원 시장에서는 작가 Emil Goh(이하 에밀고)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경원대학교 학생들이 노란색 트롤리 택시에 주부들의 장바구니 싣고 가까운 목적지까지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 에밀은 IdN(홍콩), Theme(뉴욕), Inside(시드니) 등의 매거진에 자주 등장하는 호주의 아티스트 겸 디자이너로 현재 찜지 레지던트로 국내에서 아시아 지역디자인 연구 진행 중입니다.

“상대원 시장은 언덕길로 이루어져 장보기가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재래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 마음이 담긴 이번 퍼포먼스가 재래시장 활성화의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오후 4시, 시장의 한 모퉁이에 작은 노란색 트롤리 택시 정류장을 만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어드리겠다고 학생들이 다가가면 수줍음에 얼른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탓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같은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커다란 고추꾸러미는 고춧가루를 만들어 방앗간까지 배달되었고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의 긴 대파가 나와 있던 장바구니는 골목 끝 주택 가까이 배달되었습니다. 또한 '아이 미안해서 어찌나' 하시던 과일가게 손님의 집은 버스정류장까지 배달되었고, '정말? 정말 들어주는 거지? 그럼, 나 한군데 더 들러가도 되지?' 하고 연신 되묻던 손님은 내친김에 작은 딸 포대도 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장 상인들은 팍을 흘리며 옐로우트롤리 택시를 운전하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박카스 한 박스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 떡볶이를 한 꾸러미를 손에 쥐어 주고는 냉큼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옐로우 트롤리 서비스는 무료이며 이 날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매월 첫째주 금요일 4시부터 7시까지 상대원 시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김영매(오른쪽 사진, 오른쪽) 남 한 아주머니와 김소를 만나며 장바구니를 옮기고 있습니다.





엘로우트롤리택시

# 인터뷰 | 에밀 고(Emil Goh)



에밀 고(오른쪽) IdN, Theme, Inside 등의 매거진에 자주 등장하는 로우의 이디스 트 컴 디자인으로 현재 생지 레지던스로 국내에서 아시아 지역디자인 연구 진행 중.

### 한국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한국에 대한 첫 느낌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몇몇 흥미로운 영화들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들로 인해 저는 한국에서 영어로 된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 이 시장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이 시장(상대원시장)은 꽤 작고 매우 친근한 곳입니다. 저는 전통 시장의 팬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엘로우트롤리택시)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또한 이 시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 살 수 없었던 몇 가지 물건들을 살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 왜 혹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꽤 가파른 언덕들을 이 지역에서 발견했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 준다면 한층 더 기쁘게 쇼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까?

"네가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도와라"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좋은 기억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 공연(?)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사람들의 뜻하지 않은 친절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건강음료, 우유, 과자 따위를 주었습니다.

### 이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느낌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 공연 후 엘로우 트롤리 택시 드라이버와 소펑객들이 행복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 등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에 대한 좋은 추억과 많은 것들을 산 한 주 부등 한 가게의 주인이 3번이나 트롤리 택시를 요청하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그 가게 주인은 정말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 자유롭게 한 말씀

저는 우리가 이 일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공 서비스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금주(상대원 3동, 4년 거주, 왼쪽)



### 어떻게 엘로우 트롤리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었어요?

짐은 많고, 짐이 언덕배기에 있어 부담스럽던 차에 학생이 짐을 날라 주겠다고 달려 왔어요.

### 이용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무거운 짐을 학생이 대신 날라줘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쇼핑할 수 있어 기분이 좋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니까 심심치 않아서 좋아요.

### 엘로우 트롤리 택시와 함께하는 상대원시장의 느낌은 어떤가요?

우리 어릴 적에 엄마 따라 나섰던 시장은 꽤 붐볐잖아요. 그 때의 그 시장을 보는 것 같네요.

공공시각미술

# 등너머등

점포마다 설치된 기존 등을 예술가들의 예술적 감각이 담긴 새로운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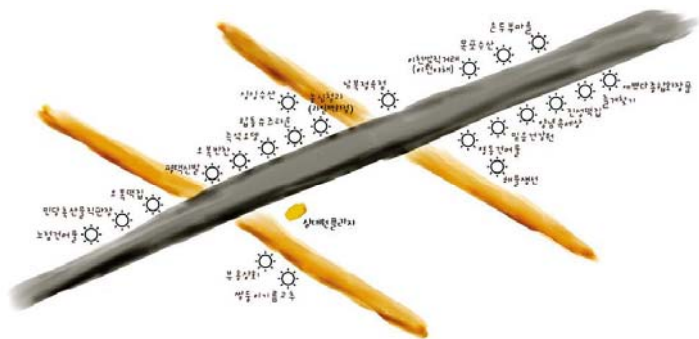
저녁 시장이 낮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는 어둑해질 무렵 하나 둘 켜지는 등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름다움만 담은 기존의 등과는 다른 시장상인과 작가가 함께 하는 기획하고 만들어 그 등 자체역시 빛 만큼이나 아름다운 '등너머등'을 상대원 시장의 상점에 달기로 했습니다.

## 도전과제

예술가들은 제각기 맡은 가게상인들의 등에 대한 의견에 예술의 옷을 입혀 이를 실제 구현해 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애써 제작한 등너머등이 해당 가게상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제작하는 일도 있었고, 설치 후 훼손되는 일도 있어 몇 번씩 다시 와야 하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 진행결과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24개의 상점에 상인과 작가가 함께 기획한 '등너머등'이 달렸습니다. 또한 이 '등너머등'에는 유명작가는 물론 초보작가(?)들도 참여했는데, 유명작가의 작품보다 초보작가들의 작품이 상인과 손님들의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초보작가들이 유명작가들보다 상인들과의 접촉이 더 잦았던 만큼 상인들의 마음을 훨씬 성공적으로 읽어 냈기 때문입니다.



- 1 생동이기쁨고추의 김형순님, 등너머등의 작가 함유리님, 생동이기쁨고추의 박현수님(왼쪽부터)
- 2 시장이게의 박정미, 등너머등의 작가 영애님(왼쪽부터)
- 3 무술상회의 이영호님, 조기연님(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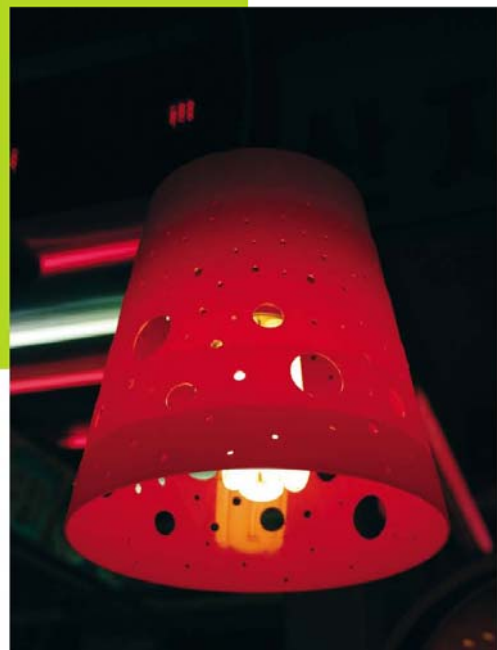




## 노점건어물

\_작가 심현우

밤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잡이 할 때 어둠을 밝혀주는 불빛은 밤바다의 잔잔한 물결과 어울려 퍼져 나갑니다. 노점건어물의 등에는 이러한 밤바다와 밤바다와 함께 흘러가는 불빛을 담았기로 했습니다. 단 하나의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이 백열등을 감싼 둥근 원을 통해 빛나면서 밤바다를 홀로 항해 하는 뽕통배에 경달게 처진 백열등을 떠오르게 합니다.



## 민당축산물직판장

\_작가 홍의택

예부터 정육점 등은 항상 붉은색이었습니다. 붉은색이 생고기의 붉은 빛깔을 더욱 돋보이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당축산물 역시 이러한 정육점 등의 경석을 따왔습니다.



## 영동건어물

\_작가 박현진

한 때는 생명을 지녔을 어물들이 말라진 모습 속에서 그들도 죽기 전에는 어찌면 혼이란 것을 지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물들의 혼(魂)을 기리는 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With 영동건어물 김선옥 대표

도영 보니까 어떻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니까 달았지요. ㅎㅎ

작가에게 어떤 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나요?

뭐...뭘 건었냐? 남풍이 달 보이고 다른 가게보다 우리집 등이 더 돋보이면 되지.

작가가 본인의 마음을 얼마나 일파나 일파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작가의 생각이 좀 난해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등너머등'처럼 시장을 문화공간화 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미려이나마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With 작가 박현진님

왜 색계가 이렇게 많아요?

건어물들이 혼이 날라가는 거예요.

네?

한 때는 생명을 지녔을 어물들이 말라진 모습 속에서 그들도 어찌면 혼이란 것을 지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 시장야채

\_작가 양혜림

시장 한 칸의 좁은 골목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탓에 대낮인데도 항상 어둡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야채노점 뿐만 아니라 시장골목까지 밝힐 등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야채노점에 해바라기 모양의 등을 달았습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는 만큼 앞으로 야채노점이 있는 시장골목은 항상 환할 것입니다.

### 에피소드

조명 설치 전,



**양 작가:** 원하시는 등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시큰둥하녀) 땡게... 그냥 양이서 해 두세요.

조명 설치 후,



**양 작가:** 마음에 드세요?

: 너무 어두워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

조명 재설치 후,



**양 작가:** 이제 마음에 드세요?

: 너무 마음에 들어. 누가 떼어갈까 봐 걱정되어서 퇴근할 때 떼어 가지고 갔다가 흥분할 때 다시 달려고.



- 1 등너머등을 설치한 후 평택신발의 모습
- 2 평택신발의 등너머등상세
- 3 등너머등을 설치한 후 오복반찬의 모습

팩팩이 놓인 신발가게에 앉아 어떤 등을 만들까를 고민하던 중 팩팩이 놓인 신발들이 상들리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발로 멋진 상들리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반찬'의 이미지를 필름에 담아 이를 상들리에처럼 연출했습니다.

## 평택신발

\_작가 백지혜

## 오복반찬

\_작가 박기성



### 즉석오뎅

\_작가 에밀 고

즉석오뎅은 상대원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한 날이면 즉석오뎅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서 뭍을 녹이고, 따뜻한 오뎅국물에 목을 축입니다. 그래서 오뎅처럼 둥근 호박등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늘어선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 합동슈즈

\_작가 정유미

투명 아크릴 통에 구멍을 뚫어 신발끈을 경성스럽게 묶었습니다. 이 투명 아크릴 통은 시장을 상징하며 그 안에서 새어 나오는 빛은 시장을 이루고 있는 가게 하나 하나를 상징합니다.



과일은 꺾이 지고 난 후에 얻는 열매라는 생각에 꽃을 모티브로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등은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과일가게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등을 만들어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 농심청과

\_작가 한정범



### 싱싱수산

\_작가 박민아

우천 시 권어물로 새어드는 우수를 막기 위해 싱싱수산의 기존 등에는 패트병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등은 예술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태어났지만 작가는 기존 싱싱수산의 등을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곧 상대원 시장의 역사라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 대신 기존의 등에 여러 가지 컬러의 권어물과 1973 등의 텍스트를 달아 등에 생기를 부여했습니다.

## 목포수산

\_작가 육호준

어떻게 하면 생선을 더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조명을 갖춰 장사가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가는 자전거의 후시경을 이용하여 반사효과를 노리는 한 편 여기에 필름으로 만든 다양한 생선을 달아 조명을 쬐 경우 이 필름이 반짝여 더 큰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원아동복

\_작가 김시영

주품목이 아동복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어릴 적 놀이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등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섯 명의 아이들이 제각기 숨바꼭질, 그네타기, 딱지치기 등을 하고 있는 등을 만들었습니다.

## 손두부마을

\_작가 이상훈

작가는 손두부마을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국수에 주목하고 이 서로 다른 형태와 빛깔의 국수들을 조명 재료로 선택했습니다. 형태와 색깔이 다른 국수를 길이를 다르게 해 잘 띄우니 국수 역시 좋은 조명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 이천쌀직거래 이천야채

\_작가 안성희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식품은 죽은 식품, 즉 야채입니다. 하지만 이 야채들이 계속해서 썩을 띄우고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등을 디자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새싹들을 보며 삶의 여유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도 담겨져 있습니다.

## 시장피자

\_작가 오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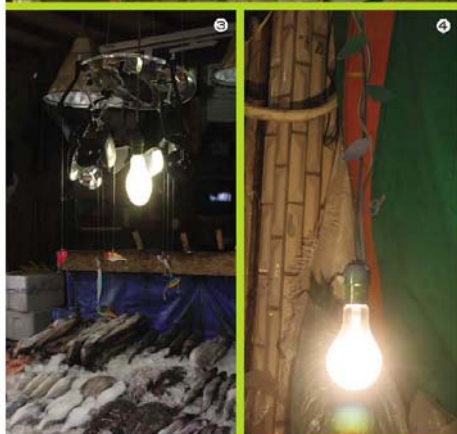
시장피자는 피자와 함께 닭튀김, 콜라, 호떡 등 다양한 간식거리를 판매하고 있으나, 상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자가 이 점포의 대표상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점포의 대표상품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작가는 피자를 접시에 덜어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등을 만들어 이 등에 여러 명이 어울려 다양한 간식을 먹는 곳, 시장피자라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1



2



3



4



5



### 부흥상회

**작가 예빈 고**  
 생활용품도 인터넷에서 사는 까닭에 부흥상회의 조기 연담은 장사가 예전만큼 되지 못한다고 한숨을 늘어 놓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생활용품을 산다는 행위는 쇼핑의 의미 뿐만 아니라 지역상인, 주민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좀더 많은 이들이 부흥기 물로 모여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이 등에 담았습니다.

### 오복떡집

**작가 김지나**  
 '오복떡집'이라는 상호를 충분히 살려 다섯 개의 복주머니에 정성스럽게 떡을 담은 등을 제작했습니다.

### 해물생선

**작가 김중영**  
 남시를 컨셉으로 삼아 전깃줄을 남시줄로 갖은 생선과 해물을 낚은 모양을 등에 담았습니다.



### 쌍둥이기름고추

작가 한유리

쌍둥이라는 가게이름에서 착안하여 두 개의 고추를 만들고 그 안에 친구를 넣어 고추씨를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쌍둥이기름고추라는 가게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With 작가 한유리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학교누앙 퍼스널 프로젝트라는 뉴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상인들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쌍둥이기름고추와 등너머등을 디자인하나요?**  
 이 가게 이름이 쌍둥이기름고추잖아요. 이 등 쌍둥이기름이라는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 쌍둥이기름을 등둘개(?)을 제창해 봤어요. 그리고 이 둘개 녹 텡구는 마치 이 집에서 파는 빵간고추 녹에는 땅콩색 고추씨를 넣었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 어떤 것을 냉가하고 느꼈나요?**  
 낭만적인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해보게 되었고, 내가 디자인한 제품이 실제로 사랑이 되니 디자인이어서 사랑과 뿌듯함, 내가 디자인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양념속세상

작가 박기성

이곳이 양념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판매하는 곳임을 잘 드러내기 위해 소, 돼지, 닭을 형상화한 '등너머등'을 제작했습니다.



## 진성떡집

\_작가 이상훈

떡의 재료인 다양한 곡물을 투명 아크릴 통에 담아 등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기교를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곡물 고유의 색이 잘 어울려 떡의 단아함까지 잘 살린 등이 완성되었습니다.

### 에피소드

표명 설치 후 진성떡집을 운영하는 백하병님과 김복만님 내외는 부부싸움을 한 배짱(?) 했습니다. 단아한 분위기를 느낀 등이 아내인 김복만씨의 마음에는 꼭 들었지만, 백하병씨는 잘 달래려m 커다란 등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복만님은 작가가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들었다며, 한밤을 한눈아했습니다.



## 민음건강원

\_작가 서주원

민음건강원은 각종 한약재를 판매하는 한편 이를 다리는 등 쉽게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곳으로 꿀 등 각종 건강보조식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가는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의 대명사격인 꿀을 모티브로 살려 여기서 별풍을 다시 별집을 유출해 내고 별집을 테마로 등을 만들었습니다.



## 즐거찾기

\_작가 정재원

향기가 나는 꽃에는 반드시 나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즐거찾기라는 가게 상호와 맞아 떨어져 패션의 향기가 묻어 나오는 즐거찾기에 나비라는 고객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예쁘다화장품

\_작가 빅기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가게이니 만큼 작가는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각종 색조 화장품을 통해 더 아름답되z려는 여성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을 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희화화해 '동너머둥'을 만들었습니다.

공공시각미술

## 커뮤니콘(communicon)\_그 첫 번째 이야기

상점 및 그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하나의 아이콘에 담은 작업으로  
우리는 이 아이콘을 커뮤니콘이라 칭했습니다.

작가\_ 오규용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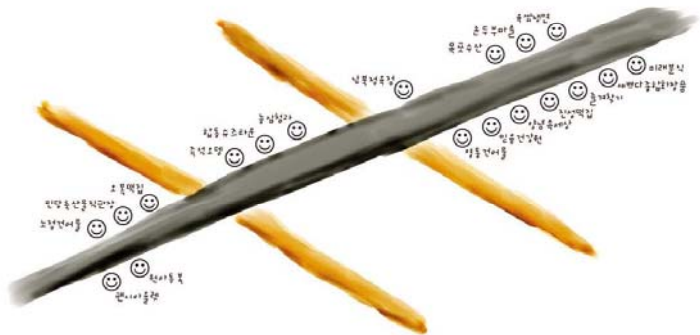
각 상점의 상호나 품목에서 그 상점을 대표할 만한 핵심단어를 찾아 그것을 시각화 해 그 상점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커뮤니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도전과제

'커뮤니콘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오규용 작가는 홀로 총 21개의 점포에 커뮤니콘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원시장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어떤 작가보다 비뻤습니다. 그 결과 각 상점의 특징을 잘 반영한 재미있는 커뮤니콘을 제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진행결과

상대원 시장 중심도로에 위치한 21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된 커뮤니콘은 양면으로 만들어져 시장쪽 면에는 앞서 말한 내용을 담아 상점의 이미지를 고객 등에게 전달하고 뒷면에는 스마일 아이콘을 담아 상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 커뮤니콘 작가 중 하나인 오규용님이 오복반찬에 직접 기획·제작한 커뮤니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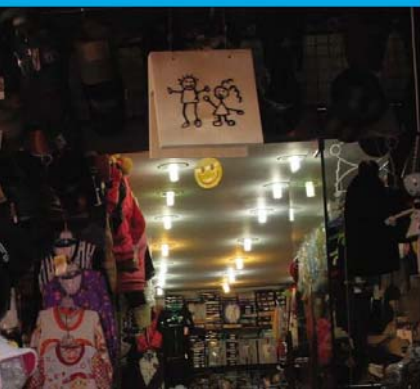
## 즐거찾기

즐거찾기는 의류를 파는 상점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즐거찾기란 말은 자주 찾는 웹페이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에 등록시켜 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곁에 착안해 의류를 상징하는 티셔츠에 마우스의 위치나 움직임을 뜻하는 화살표를 올려 놓아 상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 예쁘다종합화장품

예쁘다종합화장품은 화장품과 함께 간단한 미용도구도 함께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립스틱을 통해 화장품이라는 판매상품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이와 함께 예쁜 입술을 그려 넣어 이 상점의 상호인 '예쁘다'를 드러냈습니다.



## 원아동복

원아동복은 말 그대로 아이옷을 파는 상점입니다. 따라서 주고객층인 '아이'를 잘 나타내기 위해 마치 아이들이 직접 그려 넣은 듯한 느낌으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그려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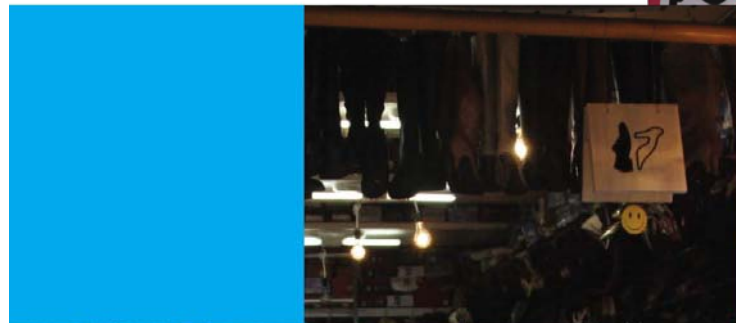
## 팬시아울렛

팬시아울렛은 액세서리 등 패션 잡화류와 함께 여학생들이 좋아할만한 팬시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팬시 문구류를 채택해 이를 바구니에 담는 것을 연출했습니다.



## 평택신발

평택신발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혹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신발의 이미지로 다양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 노점건어물

민당약국과 민당축산물 사이에서 건어물과 라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이곳은 사실 별다른 상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곳에서 판매하는 건어물과 라디오테이프에 주목, 이 둘을 합쳐 노래하는 오징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오징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형상화 했습니다.

## 이천쌀직거래 (이천야채)

이천야채는 한 어르신이 신선한 야채들을 판매하고자 노력하는 상점입니다. 이러한 절에 착안해 머리는 배추로 코는 당근으로 어르신의 머리를 만들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 오복떡집

오복이라는 가게 이름과 떡이라는 판매상품 모두를 커뮤니티 콘에 담아내기 위해 가래 떡을 썬 모양으로 숫자 5을 만들고 그 옆에 '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오복떡집에 들러 떡을 사면 떡 외에도 다섯 가지 복이 장바구니에 담길 것 같습니다.



## 진성떡집

진성떡집은 단순히 떡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방앗간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다 '성'이라는 글자에서 달나라에서 방아를 쟁고 있는 토끼를 떠올려(달은 지구의 위성(衛星)이니까요) 달과 토끼, 절구통 등을 담아 진성떡집의 커뮤니티콘을 만들었습니다.



## 농심청과

농심청과의 판매상품인 과일을 많이 붙여 있는 사과라는 대표적 이미지로 나타낸 판매상품인 과일, 특히 상성한 과일을 표현했습니다.



## 양념속세상

양념속세상은 양념 된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파는 곳으로 이 집의 자랑은 맛있는 양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양념통을 그리고 이 속에 담긴 양념은 너무 맛있어 입 속에서 폭죽이 터지고 별이 보인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만화에서 가끔 이런 식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 미래분식

'미래'라는 상호를 우주선으로 표현했고, 이 우주선을 마치 포크로 찍어 먹는 듯한 모습을 표현해 이 집이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집임을 나타냈습니다.

## 육쌘냉면

육쌘냉면의 판매상품인 냉면에 중점을 두어 냉면이 그릇에 예쁘게 담긴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젓가락을 두어 이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 즉석오뎅

즉석오뎅은 매장에서 어묵을 직접 만들어 간식이나 반찬용 등으로 포장해 거거나 꼬치에 끼워진 채 잘 익은 어묵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묵이 꼬치에 끼워진 형태로 이 집을 표현하기로 하고, 이 때 간식이나 반찬용으로 만들어진 어묵도 함께 꼬치에 끼워 다양한 형태의 어묵이 판매된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 대왕참숯갈비

상호명에서 '대왕'과 '갈비'라는 핵심단어를 뽑아 갈비를 형상화한 그림에 왕관을 씌워 말 그대로 대왕갈비를 나타냈습니다.

## 민음건강원

민음건강원은 흡연소 등과 함께 각종 한약재를 다러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에 작가는 민음건강원을 대표하는 약재로 인삼을 선택, 인삼을 형상화 해 민음건강원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 합동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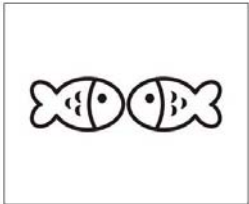
합동슈즈 역시 평택신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신발 전문점입니다. 그러나 합동슈즈의 박명옥 대표는 평택신발과는 달리 운동화 전문점으로 포지셔닝(positioning) 되길 위해 운동화 끈 이미지로 합동슈즈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운동화 끈을 어깨동무를 한 듯한 느낌으로 묶어 '합동'이라는 가게의 상호도 나타냈습니다.





### 영동건어물

영동건어물은 각종 건어물과 함께 전과물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로 코다리를 선풍기에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코다리를 선풍기에 말리고 있는 이 모습을 재미있다고 생각해 생선에 코를 끼우고 이 생선이 '물 좀 줘~'라고 의치는 것으로 이 가게의 정체성을 형상화 했습니다.



### 목포수산

목포수산은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집의 대표 판매상품은 생선입니다. 그래서 싱싱한 생선이 이 집으로 모인다는 의미로 두 마리의 생선이 모이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 남북정육



남북정육은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양념된 돼지고기를 함께 판매하며 이 중 돼지고기가 이 집의 대표 상품입니다. 이러한 점을 나타내기 위해 돼지코를 형상화한 것을 커뮤니콘 중앙에 놓았으며, 그 주위를 쇠코뚜레로 둘러 놓아 소고기도 판매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 손두부마을

손두부마을은 가게에서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판매하는 두부를 그리고 두부 옆에 집 두어 채를 그려 '마을'이라는 상호도 시각화하였습니다.

공공시각미술

## 커뮤니콘(communicon)\_그 두 번째 이야기

이야기가 살아 있는 간판 프로젝트

작가\_ 정선주  
함께 한 사람들\_ 심재주(photographer), 임정규(craft making 1st assist),  
정나영(computer graphic 1st assist)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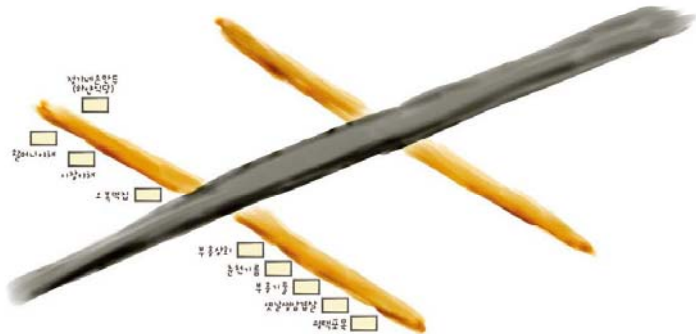
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과 지역 더 나아가 지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구전의 텍스트(text)를 만들고, 이를 아티스트가 편집하고 미화(beatification)하여 상승된 가치로 예술의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 도전과제

일반 시민과 소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늘날 흔히 목격되는 전시장안의 예술을 더욱 공적인 장소로 끌어들이 '인터뷰' 라는 소통의 시도를 통하여 지역(혹은 개인)의 정서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인터뷰의 행위(스토리텔링)로부터 나온 시각화된 작업물을 통해 제3의 관람객(상대원 시장 상인의 손님)에게 호기심을 유발시켜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행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 진행결과

상대원 시장 내 상점 9곳을 인터뷰하여 이야기를 뽑아내 시각화(그들만의 이야기를 글 혹은 그림으로 표현)한 후 시각형의 전시장을 탈피하여 일반인의 생활속에 함께하는 미술적 행위로 시장 내 각 상점에 설치했습니다.





## 시장야채

**여기에서 장사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93년에 우리 애기 아빠가 운영하던 보일러 가게 부도 났어. 한 1억을 넘게 부도를 맞고 나니까 살길이 필요했지.

**이후, 당시 1억이면 지금 5억정도?**

그 돈을 부도 맞고 나니까 뭐랄까 죽고 싶더라고. 지금도 그런데. 신랑이랑 부모 끈은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 끈이 굉장히 무섭지. 뼈대만 있는 아파트 봤어? 그런데 다니면서 막일하고 그랬거. 사람들이 오투기같다고 했어.

**그거 안 갖고 잠적해 버릴 수도 있는건데...**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 차라리 갖고 뭣뭣하게 사는 게 낫지. 우리 아들이 지금 6학년이야. 그 애 만삭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렸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개가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잘 못 챙기고 그러니까 애가 천덕꾸러기였어. 숫기가 없었던 거야. 뭐만 시키면 눈물만 글썽글썽 한다는 말만 전해 들으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데 그 애가 지금 반에서 1,2등이야.

**엄마랑 같이 파이팅 했네요!**

의외로 잘 해주더라고



**요새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딱해. 이렇게 일하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 주고 있는데 일없다고 그러는데... 일이 왜 없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옆에 할머니(할머니야 체)도 신문지 폐휴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이예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돼. 그런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없어야 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담담해). 고작 고령연금 8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우리가계에서 야채 다듬어 팔면 거기서 오백 원씩 더 붙여 팔아. 그걸 할머니 뉘으로 떼어 챙겨드리지.

**시장야채 만의 자랑거리? 야채 자랑 좀 해주세요.**

여름에 오면 재미있는 이야기 해줬을 텐데, 저는 산지 것을 바로 바로 가져다 파는 게 몇 개 있어요. 상대원동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알아. 열무하면 상대원시장 뚱뚱이네. 열무는 아예 제가 씨앗을 밭에다 갖다 주고 그 씨만 뿌려서 해달라고 하니까, 열무가 좋아. 농약을 안친 거니까.

**장사하시면서 술্প넌던 점.**

여자라서 술 취한 사람들이 술 먹고 괜히 툭툭 차고 가요. 못생겼다고 하거나 다른 거 욕하는 건 다 썩었는데, 우리 야채 툭툭 치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 못 참아요.



## 할머니야채

할머니야채가 좋으세요? 아줌마야채가 좋으세요?

아이, 아줌마로 해... (정직)할머니라고 해도 괜찮아. 나 늙었는데 할머니라고 해도 좋아. 할머니라고 해라. 죽을 때도 다 됐는데...

장사하신지는 어느정도 되신거예요?

여기 상대원시장한지는 30년정도돼

그럼 평택포묵이랑 비슷하시겠네요?

응, 한 30년 돼

근데 다른 장사도 많은데 왜 야채장사하세요?

다른 건 배우지 못하고, 이거도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야. 장사같은 것도 할 줄 모르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밥은 먹고 산다 알려줘서... 어떤 야채장사 할머니가 가르쳐 주고 돌아가셨어. 내가 배운 것은 이것 밖에 없어.



다른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할머니 야채가게의 장점은 뭐가 있으세요? 야채가 특별히 신선하다던지, 더 맛있다던지... 뭐 그런 거요.

그냥 그렇지 뭐. 뭐가 더 맛있고 덜 맛있는 것이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거기야.

오랫동안 장사 한 곳에서 장사 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것이 있다면?

되든 안되든 그냥 앉아서 하는 거야. 별거 없어.

단골은 많으세요?

단골은 좀 있는데 옆에 직판장이랑, 시장야채가 들어오면서 다 뺏겼어.

경쟁이 치열하네요.

그렇지도 않아. 그냥 좋게 사는 거야. 딸 같은 애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다 좋게 살아.

장사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잘 팔려야 좋은 거지.

그럼 제일 싫을 때?

못 팔면 속상하지. 여름에 다 썩어나서 버릴 때 속상하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하고 싶은 말 뭐 있어? 밥이나 먹여준다면 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 정가네손만두 (하안분식)

### 여기 이름이 왜 하안이예요?

음식을 정갈하게, 깔끔하게, 맛있게, 손님에게 헤드린다는 의미예요.

### 주요 상품이?

만두도 하고요 손칼국수, 순대국밥 메인은 그거예요.

### 제일 자신있는게 뭐예요?

똑같은데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만두도 여기서 직접 만들어요. 다들 체인이거나 한데 저희는 직접 만들어요. 20년 넘은 단골손님도 많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짜 손만두는 이런 거예요. 칼국수도 직접 흥두꺼로 밀어서 만들어요.

### 제일 자신있게 가게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으세요? 정갈함?

맛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대로 물려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2대가 같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아니예요. 엄마가 힘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6개월 정도, 저는 근데 아직 음식 맛 이런건 배우지도 못했고, 또 조만간 원래 하던 일로 복직해야 해요.

### 장사하시면서 나쁜 점도 있잖아요. 슬펐던 점이나 그런 것은요?

(서민동네라서 그러려니 할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돈이 없다고 하고 달라고 하면 괜찮을텐데, 다 드시고 나서 돈이 없다고 하시거나 도망가는 경우에는 황당해요. 화가 나죠.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그냥 가고 그러기도 해요. 부엌에서 뭐 하고 있는 사이에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한 명일 때도 있는데 여러 명이 와서 먹고 나가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면 어쩔 수 없지요.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식당에 제일 중요한 게 맛이지만, 손님한테 친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손님입장에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내가 먹는 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해요. 다른 집과는 달리 저희는 김치도 직접 만들거든요.

다음에는 사장님 말씀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오랜 손맛처럼 배어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전에 라디오 방송국에 디제이 분과 엄마가 인터뷰 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안분식' 부사장(사장님 딸)과의 인터뷰 중에서〉



## 오복떡집



**장사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장사한지는 한 17년 됐나 봐.

**꽤 오래하셨네**

우리 남편이 떡일한것은 30년이 다 되어가요. 우리는 주로 명함 같은데 옥토끼하고 복 주머니 많이 썼어요. 처음에 개업할 때 그런 것 들렸어요.

**왜 떡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애기아빠가 떡 기술을 배워서요.

**그러면 장사하시면서 제일 좋았던 점과 니꼈던 점을 말씀해주신다면?**

손님이 맛있다고 할 때나, 떡집을 해서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고 할 때지. 돈만 벌었지. 생긴 건 골병밖에 없어. 그래도 장사하면서 한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해봤어.

**니꼈던 점?**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사람들이 나쁜 일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좋은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 이바지 정성스레 헤드린 손님들에게 푼다발을 받기도 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어.

다만 힘든 적이 있다면, 우린 개인 시간이 없다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일 마치면 다시 자러 가.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 빼고 일찍 문 열고 늦게 문닫고, 일하다 힘들다고 문닫고 그렇지 않고... 매일 새벽에 문 열어서 오후10시 30분까지는 장사해.



**다른 떡집이랑 비교해서 오복떡집의 승부是什么呢?**

남보다 부지런한 것

**품목중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난 하나하나 다 맛있는데 ^^

**정말 다 맛있어요?**

응

**특별히 하고 싶으신 얘기나 강조하셨으면 하시는 게 있을까요?**

재료를 직접 만들어 더 정성이 들어 있는 것. 바쁘다고 대충하는 것 아니고 정석대로 하는 거. 그냥 그런 것들.

〈'오복떡집' 사장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 부흥상회



### 진짜 없게 없네요? 돌솥비빔밥도 해 먹겠고, 찜기도 있고

생활용품은 다 있다고 보면 돼. 다 갖추려고 하는데, 수요층이 없으니까. 젊은이가 있어야지 좀 팔리지, 나이가 들면 그릇 소비가 떨어져.

### 경기가 최악이에요 올해가?

지금 최악이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피크여야 해. 혼수 철이 끼었고 가을에는 김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수는 지금 인터넷이고 백화점이고 다 헐기고 없고, 인터넷이 제일 무서워요. 앉아서 구매하는 것이... 조금 부유층 시간 있으신 분들을 백화점에 나가고.

### 인터넷이 정말 강력한 경쟁상대일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제 안 파는 게 없어.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을 뿐더러 서민들은 백화점을 두려워했어. 백화점은 비싸고 시장은 싸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 왔는데, 지금은 내 물건 내가 사고 엄마는 뒤에서 구경하고 그러거든. 옛날에는 엄마가 이거 좋아 그러면, '예, 엄마' 하고 장만해 갔거든. 내 살림이니까 내가 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수십 년 살림해온 경험으로 보는 눈이 나아요. 옷 사고 그런 건 아가씨들이 잘 하는데 살림은 엄마들이 더 잘해요.

### 그럼 여기 오면 사장님께서 엄마처럼 추천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 딸이 서른 아홉인데 같이 유치원 다니던 애들이 시집간다고 오면, 엄마같은 기분으로 다 설명해주면서, 이걸 꼭 필요한 거고 이걸 덜 필요한 거고, 냄비도 셋트는 6종이다 그러면 이걸 많이 쓰고 이걸 두 개 있어도 괜찮고 프라이팬도 이 치수 이 치수 많이 쓰고, 다 가르쳐주면서 해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 쟁반은 때가 안타서 좋고 저 쟁반은 때가 끼어서 실용적이지 않고 그렇게 알려주지. 동네니까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골라주지.



### 사회변화에 재래시장이 고전하는 것 같아요.

나부터라도 빨리 변했어야 하는데 지금의 변화는 속도를 못 쫓아가요. 상대원시장 상인들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못해요. 인터넷이라도 좀 하고 그럴 땐 텐데 나부터도 그걸 못하겠어. 변화가 너무 빨라요. 장사 안 되는 이유가 흠쇼평, 온라인 쇼평 때문에 그래요.

###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생존한 재래시장의 사례가 많아요.

배운 사람들이 문제점을 빨리 발견을 해야 해요. 우리는 맨날 밥만 먹고 여기만 있는데 뭘 알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개구리를 찬물에서 서서히 데우면 온도변화를 모르고 거기서 죽는대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겁다고 팔딱 튀어나간대요. 진작에 상인들을 교육하는 데가 있었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장사하는 기술이라던가 진열하는 방법이라던가 조명이 라던가. 하긴 교육시키면 뭘 해. 교육하는데 보니까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밖에 안 와요. 안가요 안가.

### 그래도 여기는 끊임없이 손님이 오고 물건을 사가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석양길이에요.

〈'부흥상회' 사장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 부흥기물



**정말 끝내~~ 인터뷰에 응해 주시네요.**

글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더니까, 근데 계속 옆집 '춘천기름' 할머니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도 다 하기로 했나요?

**네. 그런데 녹음을 해도 될까요?**

어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받아 적을게요.**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부흥상회와 이름이 비슷해요.**

부흥상회는 형님네고, 우리는 부흥기물이에요.

**형제가 같은 거리에,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를 하시네요?**

예, 그렇죠,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 제가 먼저 그릇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도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우리 옆에있던 '춘천기름' 할머니를 따라 형님도 나도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장사를 하시면 위로도 되겠지만, 경쟁도 할 것 같아요.**

헐기 많은 젊음의 때에는 그렇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많이 나이를 먹었고,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물건이 떨어지면 꾸이다가 팔기도 하고, 편하게 장사해요.

**그래도 부흥상회와 차별화된 부흥기물의 매력이 있다면?**

글쎄요... 계속 오가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조용한 사람들이예요. 아마 옆집 할머니가 이거 참여 안 하셨으면 우리도 안 했을 거예요. 시끄러운 일이나, 손해 보는 걸 싫어해요. 덤으로 드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는 것도 그만큼 싫어해요. 웬만하면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드리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단골이 많죠. 또 저는 사실 살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으로 손님들 상대도 못하고, 그래도 물건은 자신 있어요.

**물건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게라니 멋진 것 같아요.**

벌써 30년째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결눈질도 없었죠, 그만큼 우직하게 장사만한 젊은 날인 것 같아요. 이제 상대원시장도 예전 같지 않고, 매출도 변변치 않지만, 내일도 또 문을 열고 우리의 지랑이자 간판인 물건들을 담고 진열하며 장사하고 있을 겁니다.

〈'부흥기물' 사장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 춘천기름

**이까 비닐 덮으셔서 가시는 줄 알았어요.**

달아놓은 거니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덮어놓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는 분들은 오지. 할머니 집에서 진짜 깨끗한 거 사는 것 같다고, 껌소금 같은거도 일부러 이렇게 달아 두는 거야 깔끔하게. 그래서 빵아달라고 해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빵아주고.

**직접 빵아주세요?**

응, 직접, 이 할미가 다 직접 씻고 말리고 한 다음에 빵아주는 게야. 고추도 손으로 하나하나 닦고.

**대단하시다.**

내 나이가 이제 올해 일흔이야. 그래도 힘들다 생각은 이전에는 안 해봤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래도 힘은 조금 들겠지.

**그렇게 오래 장사하시면서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많으셨을 것 같어요?**

그럼, 그래도 처음 2년은 너무 힘들었어. 여기 시장에 자리잡는 과정이었지. 동일업종과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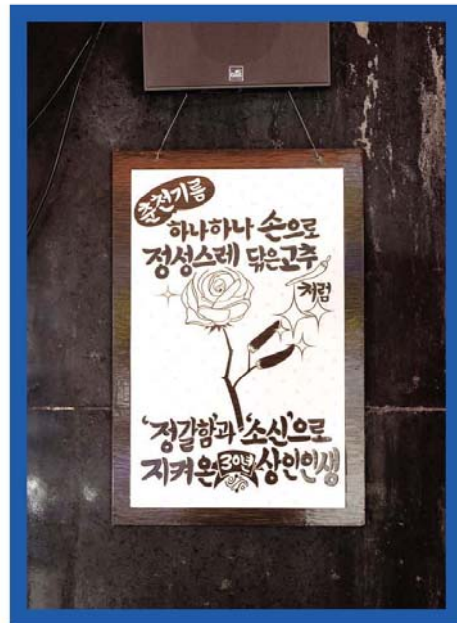
**그래도 2년이 지나면서 좋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단골손님이 생기니까 훨씬 나아지기 시작했어. 일단은 장사를 하면은 속이진 말고, 장사하지 했지. 더는 안 쥐도, 그냥... 고추 600g을 빵아달라고 하면, 빵은 과정에서 조금 날라가도, 더 넣어서라도 600g은 맞추어 주고... 그렇게 장사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야. 지금도 빵아서 달아봐서 조금이라도 눈금이 다르면 빵아 놓은 거 더 넣어줘.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믿고 오는 거야. 손님을 믿게끔 해야지. 그냥 일렁동팡 해서 장사해서 팔아가지고 그계 전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손님이 한 분이 와서 빵든 뭐하든 간에 성의껏 알아서 해드려. 그렇게 장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장사에서 신용이나 믿음, 이해와 배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상도는 지켜야지. 장사꾼의 도덕을 지켜라 이거야 나는. 상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상도덕을 안 지키니까 서로가 아웅다웅하는거야. 상도덕은 꼭 지켜야 된다. 난 그건 꼭 강조해요.

〈'춘천기름' 사장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 옛날생삼겹살

### 지난번에 여기 생삼겹살에서 사진 찍을 때 화내셨어요.

지난번에 김치담글때? 뭐 여기 한다고 왔다갔다해도 우린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손님이 와서 먹는 위주니깐. 우리는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단골들이 있고 해서. 선전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위낙에 뭐 입소문으로 다니지.

### 맛있나봐요?

김치 같은 것도 직접 담지... 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소리 쳐가면서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다 국산으로 하고 농가럽하는 것도 없고... 시골에서 다 가져오고 그래. 집에서 내가 먹는 것처럼 해. 조미료니 뭐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하나까, 나부터 안 먹으니 파는 음식에도 안 넣어. 나는 안 먹고 손님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

### 가게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7년, 우리가 이 건물주야.

### 어떻게 시작을?

먹고 살기 위해 한 거지, 2001년 11월에 시작한 거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 많은 업종이 있을 텐데 왜 요식업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러다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 때 우리도 이걸하면 괜찮겠다 싶어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된 거지.

남의 가게라던 걱정했을텐데 내것이니까 모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찬같은 것은 많이 안주고 김치하고 된장찌개 뭐... 이것만 나가는데, 그런 것은 신경 써서 나가.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고기 같은 것도 우리가 가져오는 곳이 조금 비싼데도, 고기가 좋으니까 돈을 좀 주고서라도 한곳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지.

### 주 무기가 재료, 신선한 좋은 고기, 그리고 김치?

고춧가루 이런 것도... 깨끗한 것은 자신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시골에서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해주시니깐 그만큼 깨끗하지. 다 손으로 닦아 주셔. 그런 고춧가루로 김치 담그고.

### 장사하시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고, 좀 소개해 주세요.

좋은 때는 손님들이 와서 김치 맛있다 그리고 찌개 맛있다 그럴 때. 세가지가 다 맛있다고 그러면 고맙고, 자신 있게 또 내 나름대로 내놓죠. 고기하고 된장찌개, 파절임. 나오는 것만이라도 자신 있게 올리지.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면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감독 하에 시키는 한이 있어도 직접하고 말야. 막말로 사서 하면 손님들이 김치에 대해 불만을 해도 내가 뭐가 들어갔는지를 모르니깐 답변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건 뭐가 안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아니깐 딱 답변을 한다고.

### 그럼 마지막으로 가게 특징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특징이라고 하면, 정직. 고기 양이라던가 말 그대로 속이고 얼렁뚱땅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일단은 고기가 회전이 잘 되니깐. 고기는 자신 있어요. 나오는 건 정직하게 하고 진짜로. 조금 손님들이 트집잡고 뭐하면 난 얼굴이 확 올라버려. 마지막으로 맛 자랑을 하자면 된장, 고기 맛, 김치 맛이 3가지.

〈'옛날생삼겹살' 사장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 평택포목

**이 가게가 몇 년 정도?**

우리 삼십육년

**삼십육년이에요? 그럼 쌍둥이기름고추하고 막상막하네요?**

쌍둥이기름고추가 더 늦게 들어왔어.

**쌍둥이기름고추가 더 늦게 들어왔어요?**

최초. 우리가 1인자여.

**최초의 가게인가요?**

응, 우리가 시장이으면서... 우리 시아주버님이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들어왔어.

**시아주버님이 시장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최초의 시장. 우리 시아주버님이 뒀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여

**삼십육년동안 이걸 혼자서 꾸려오신거예요?**

우리 아저씨랑 둘이, 중간에는 겸원도 두고 했었지. 장사 안할려고 하다가 안할 수가 없더라고. 시장 이거 진다고 해서 은행동 가서 한 4년을 했다가 금강시장 있는데 가서 거기서 4년을 하다 우리가 여기 토박이니까 다시 들어왔지. 시장이 들어갈만한데가 없어서... 쌍둥이 기름고추는 계속 여기서 한거고



**그럼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지요?**

응. 우리는 위치가 여기가 원래 아니야. 저 시장 안이야.

**오래되셨으니, 단골도 많고, 주민들이 여기서 혼수 많이 해가시겠어요.**

열심히 관리 하다 보니 외지로 이사를 가셔도 혼수하러 오고, 또 소문듣고 오고, 또 바느질같은 것.

**포목점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면?**

자부심? 좋은점 같은것? 여러 사람들을 예쁘게 해주는 것. 입었을 때 예쁘잖아 그럼 나도모르게 환성이 나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옷을 맞춰서 하나라도 잘못된거 없이 다 만족하고 나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내가 장사를 늦게까지 해야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평택포목' 사장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 각 상점주와의 인터뷰 내용은 작가 청선주님이 정리해 제공했으며, 가능한 원문을 그대로 실도록 노력했습니다.



## 끝 목 길 하나

**지도** : 홍의택

**진행** : 덩(양정아, 이조은, 편현석 등 경원대학교 학생으로 구성)  
 양정아, 이조은, 편현석 등 경원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팀인 '덩'은 상대원 시장 내 40여개의 상점을 일일이 방문  
 해 상인들이 어떤 색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상점을 화살표모양으로 그려 상대  
 원시장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 골 목 길 나

지도 : 용의택

진행 : Design Factory(정진환, 박준석, 방기열, 손금주, 김예인,  
강순모, 김다예, 박수현, 김호연, 박환희,  
김승현, 신교현 등 상명대학교 학생으로 구성)

'상대원시장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자발적 상인들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Design Factory팀은 이(상인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원이라는 도형으로 표현하여 골목길 프로젝트에 반영했습니다.



## 공공시각미술\_상징조형물

나는 '상대원시장'에 갑니다



상대원시장은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는데다 성남시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어서 시장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시장을 널리 알리는 한 편 상대원 시장의 랜드마크 기능 수행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도시의빛과색'팀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도시의빛과색'팀은 다소 조형적인 의미가 강한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빛과색'팀의 김영우, 이상주님이 상징조형물의 홍보를 위해 상대원 시장 곳곳을 돌아 다니며 상인들을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들어서게 될 상징조형물을 통해 상대원 시장을 '광고'하고자 텍스트를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탄생한 것이 현재의 상징조형물로 이 상징조형물은 색채, 글씨체 등을 통해 '자유롭고 즐거운' 또한 '가지각색의 것' 들이 가득한 <신나는 상대원 시장>의 컨셉으로 만들어졌으며 '나는 상대원 시장에 갑니다' 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공시각미술\_미끄럼 방지를 위한 도로포장

공공시각미술팀은 케노피 설치와 도로포장 중 하나를 선택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노피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를 포장할 것인가'를 상대원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 보기로 하고, 이를 위한 모임을 원다방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십 수명의 상인들이 사랑방에서 모였고, 이 자리에서 성남문화재단과 공공시각미술팀은 상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생업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상인들도 많아, 성남문화재단의 김성호 전문위원과 상인회 김국남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상인들의 상점 하나 하나를 돌며 상인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상인들의 압도적 지지로 상대원시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시장 내 도로를 포장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시각미술팀은 자연을 뜻하는 녹색으로 몇 가지 도로포장 시안을 만들어 다시 상인들에게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시안이란 녹색단색도로, 녹색나뭇잎도로, 녹색줄무늬모양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원 시장의 도로포장은 녹색 대신 붉은색을 선택해 일반적인 형태의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01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 열린 도로포장, 케노피 설치 관련 회의 모습
- 02 공공시각미술팀의 도로포장시안, 녹색단색도로, 녹색나뭇잎도로, 녹색줄무늬모양(왼쪽부터)
- 03 민달악국 이재한님(가운데)의 의견을 묻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김성호 전문위원(왼쪽)
- 04 원아동복 신광우님(오른쪽)의 의견을 묻고 있는 상대원시장 상인회 김국남 회장
- 05, 06, 07 도로포장은 현재 진행 중



도로포장을 실제로 진행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로포장을 위해서는 상인들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도로에 적치된 상품을 철수하는 등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른 도로에 페인트를 칠해야 좋는데 도로포장 예정일 전 날 비가 온 일이 많아 도로포장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진행하고자 했던 도로포장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12월에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나는 상대원시장

# 공공컨텐츠예술

4부



## 사업개요

## 공공컨텐츠예술

## 기획의도

공공컨텐츠예술은 일종의 '커뮤니티 조성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 추석행사 - 추석을 맞아 풍물놀이, 사자춤, 색소폰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 길거리 건강검진 -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총2회에 걸쳐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 놀토공작 - 놀토에 지역 아이들을 사랑방으로 초대해 예술체험을 갖게 했습니다.
- 꼬마시장 - 아이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가져와 상대원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벼룩시장을 개최했습니다.
- 어린이라디오스타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도와 어린이들이 라디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펠트배우터 - 지역 주부들에게 펠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줌마DJ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도와 주부들이 라디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술감독 이상훈



촬영담당 차정희

## 도전과제

인터넷라디오방송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조성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실행하게 되자 공공컨텐츠예술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조성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컨텐츠예술팀은 상대원시장 상인과의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쌍방향의 소통 체계를 구성하는 중대한 역할이 맡겼습니다.

## 진행결과

'한마당 문화예술 배움터'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된 공공컨텐츠예술은 모든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힘썼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창작의 경험을 제공했으며, 추석, 송년행사에 마을잔치를 개최함으로써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줌마 DJ, 어린이라디오스타와 같은 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것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줌마DJ·펠트배우터 진행자 박정숙



놀토공작 진행자 양피정, 한유진(왼쪽부터)

# 공공컨텐츠예술 프로젝트 한눈에 보기

8월

30 공공컨텐츠예술 프로젝트  
기획·실행팀 계약

9월

10 상대원시장프로젝트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한가위 큰 줄 놀이마당) 진행

10월

6-12.19 줌마DJ

8-12.19 어린이라디오스타

10-12.29 켈트배움터

18-12.27 놀토공작

24 길거리 건강검진

11월

8 놀토 공작

15 상대원시장 속의 꼬마시장  
2차 무료 길거리 검진



## ‘한가위 큰뜰 한마당’

추석을 며칠 앞 둔 지난 9월 29일, 상대원 시장에서는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인 ‘한가위 큰뜰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먼저 우리소리연구회 ‘숫대’가 흥겨운 풍물소리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상점을 지키던 상인, 장보러 나온 아주머니 모두 풍물패의 주위로 모여 들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풍성한 한가위와 상대원 시장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상대원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어 우리소리연구회 ‘숫대’의 주도로 고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고사는 추석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기도 했지만, 상대원사랑방원대방 오픈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안녕을 비는 의미도 있는 만큼 상인은 물론이고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및 이번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차례로 고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고사가 그렇게 마무리 되어갈 즈음 ‘숫대’는 다시 한 번 흥겨운 소리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한 마리의 사자가 ‘숫대’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몇몇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실 진짜 사자는 아닙니다. 이화섭과 정병인님이 한 조를 이뤄 사자춤 공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람’과 함께 시작된 사자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우리소리연구회 ‘숫대’와 사자춤팀의 신명 나는 공연이 끝난 뒤 교동안전공단 색소폰동호회 풀잎소리의 이병석, 홍기철님의 색소폰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 공연에서 이병석, 홍기철님은 중후한 색소폰 소리로 우리 귀에 익숙한 가요 등을 연주해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색소폰 소리와 함께 날도 점점 저물어 갔습니다.

이 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장바구니 만큼이나 상대원 시장 역시 풍성했습니다. 장을 보는 도중 풍물패와 사자춤, 색소폰 소리에 발을 멈추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속에 상대원동의 삶도 고스란히 묻어 사람사는 향기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의 의료인들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상대원동에 속한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 01 평택포목의 이창호님이 성남의료생협팀의 정지혜 약사님으로부터 체지방을 측정받고 있습니다.
- 02 상대원플라자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진료소에서 길거리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03 우리순대국의 직원 및 손님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 04 우리순대국 윤여덕님이 정윤기님으로부터 혈당량을 체크받고 있습니다.
- 05 정윤기님이 한 상인의 혈당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길거리 건강검진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의 장지혜, 정윤기, 남언호님(이하 성남의료생협팀)은 지난 10월 24일, 상대원시장 상인 및 고객들의 무료 건강검진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원 플라자 옆 주차장에는 제법 그럴싸한 간이병원도 차려졌습니다.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과 지역 의료인들이 주치의 제도 도입과 병원 설립을 목표로 설립한 곳이며, 현재 태평 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꽤 매서운 바람 탓에 오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의료생협팀은 상대원시장의 상점 하나 하나를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성남의료생협팀은 지난 30년 간 상대원 시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순대국에 들러 대표인 윤여덕님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체지방 치수, 혈당량, 혈압 등을 살폈으며, 뒤를 이어 평택포목의 대표인 이창호, 김병금님의 체지방 치수, 혈당량, 혈압 등도 살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터넷 라디오 공개방송'이 시작되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람하기 위해 현대마트 옆 주차장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에 성남의료생협팀은 다시 현대마트 옆 주차장 간이병원에 자리를 잡고 상대원 시장 상인 및 고객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넘어뒀을 질 때까지 이곳 간이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줄어들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전문제가 등으로 해가 완전히 지자 성남의료생협팀은 다음 번 길거리 건강검진을 약속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두 번째 무료 건강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이 날은 지난 번 건강검진이 상대원 시장 상인보다는 상대원동 지역주민에게 그 혜택이 많이 들어갔다는 판단 아래 성남의료생협팀이 일일이 상대원 시장 상점 하나 하나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성남의료생협팀에 의해 이루어진 양일의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성남의 의료인들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상대원동에 속한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획의도**

학교가 쉬는 2, 4주 토요일을 이용하여 상대원 시장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놀이공작'이 기획되었습니다. 이외 함께 '놀이공작'을 통해 아이들에게 재래시장, 즉 상대원 시장의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상대원 시장이 아이들의 공동체에 속함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습니다.

**도전과제**

한정된 공간, 한정된 예산으로 놀토공작을 진행하다 보니 뒤늦게 놀토공작 수업을 찾았던 아이들 몇몇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행결과**

아이들은 '놀이공작'과 뒤를 이어 진행된 '간식시간'을 통해 상대원 시장 상인 및 상점들과 잦은 접촉을 가지면서 점차 상대원 시장을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각종 공작을 경험하면서 문화체험도 했습니다.



## 그 첫 번째 얘기\_ 종이공작

- 일시 10월 11일 오전 10:00 ~ 오후 12:00
- 강사 한유진(조각가)

강사인 한유진님은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 나무와 숲을 표현하라'고 하고는 도화지와 색종이를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수업은 시작됐는데 꽤 많은 아이들은 아직도 '놀이공작이 뭐야?'하는 얼굴로 웅성웅성 거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칭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대칭의 원리로 나무와 숲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사도 당황했습니다.

소제나 주제 모두 우리 주변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볼 수 있리라 기대했는데, 정작 어린이들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는 눈치껏 소재와 주제를 이해해 갑니다.** 강사가 표현하라는 것은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했지만 웅기증기 머리를 맞대는 동안 무척 친해졌습니다.

## 그 두 번째 얘기\_ 흙 가지고 놀기

- 일시 10월 25일 오전 10:00 ~ 오후 12:00
- 강사 한유진(조각가)

'찰흙'의 등장엔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이 해 봤어요."라며 저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강사인 한유진님은 이 날 (아이들이) 경험한 흙이 지금까지 (아이들이) 경험한 '찰흙'과는 분명히 다른 것-도자기를 만드는 흙-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흙, 즉 도자기를 만드는 흙에 대해 아이들은 대체로 **'신기하고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흙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한 찰흙과는 다른,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흙에 익숙해진 뒤 한유진님은 그 흙을 마치 가래떡처럼 길게 말고 다시 이것으로 또아리를 만들어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 한유진님은 아이들에게 저마다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은 한결같이 그릇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컵 한 컵 그릇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들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릇들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 도자기 흙과 만나고 이것과 친해지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도 있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 그 세 번째 얘기\_핸드프린팅

- 일시 11월 8일 오전 10:00 ~ 오후 12:00
- 강사 강혜민('DIY세상'경기지부장)

이 날은 아이들은 유난히 눈을 반짝이며, 강사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즈음 해 보고 싶었지만 워낙 고가의 공예로 알려져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던 '핸드프린팅'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가라면 어떻게 이 날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이 날 강의는 성남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DIY세상(www.diyseosang.net)' 경기지부가 저렴하게 핸드프린팅 재료를 제공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강사인 강혜민 선생님의 '시작'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고무찰흙을 크게 뭉쳐서 그 속에 고사리 같이 예쁜 주먹도장을 찍고, 주먹도장으로 만들어진 빈 공간에 정성스레 석고를 부었습니다. 그 석고가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꽤 시끄럽게 간식(명인만두의 라볶이, 만두)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명인만두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가 마지막 정반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자 아이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아무튼 석고가 완전히 굳은 뒤 석고를 감싸고 있던 고무찰흙을 떼어 내자 아이들의 고사리 주먹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판에 붙이고,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을 칠하는 것으로 작품은 완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작품이 완성된 후 '이 손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라면서 자신의 손을 꼭 닮은 작품에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DIY세상'은 지난 1999년에 순간조형예술이라는 예술적 개념 DIY(do it your self) 시장에 도입, 조형예술의 대중화를 표방하며 손발조형만들기세트 '손찍고 발찍고'를 개발, 출시한 순간조형전문 업체입니다. 또한 강혜민 선생님은 지난 십 수년간 순간조형예술에 관심을 갖고 작품활동 및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 그 네 번째 얘기\_폐품 가지고 놀기

- 일시 12월 12일 오전 10:00 ~ 오후 12:00
- 강사 한유진(조각가)

놀토공작은 그간 큰 인기리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날만은 유독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날의 공작 주제는 '폐품'이었고, 따라서 이 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폐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폐품'이란 준비물 때문에 참석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고물이 많고 물상에서조차 고물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데 막상 찾으면 또 없는 것이 고물의 특징인가 봅니다. 그래도 참석한 아이들은 폐품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원래 수업의도는 폐품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기존의 것을 해체하는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수업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자 선생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직 새로운 그 무엇이 탄생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은 놀라운 것이어서 불과 몇 분 사이 훌륭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이 해체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해체와 함께 창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 다섯 번째 얘기\_나무 가지고 놀기

- 일시 12월 26일 오전 10:00 ~ 오후 12:00
- 강사 한유진(조각가)



이 날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모양의 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어린이들은 나무라는 소재 자체에 큰 흥미 느끼며 서로가 가진 재료 즉, 나무가 잘린 모양을 비교하는 등 즐거워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인 한유진님은 다양한 모양의 나무에서 우리가 수확시간에 배운 다양한 도형들을 이끌어 내고 이 도형들을 토대로 곤충, 얼굴 등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린이들에게 알려 줍니다. 아이들 역시 여기서 힌트를 얻어 곤충, 공룡, 눈사람 등 다양한 주제를 나무라는 소재로 표현해 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조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은 오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비록 오늘이 놀토공작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조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달은 만큼 혼자서도 혹은 놀이감이 없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린이들의 눈에 담겼습니다.



## 미니인터뷰 | 강사 한유진



강사 한유진님은?

미술교육을 통해 수년 간 어린이들과 호흡해 온 한유진님은 현재 조각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놀토공작을 통해 한유진님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들이 자신의 머리 속에만 머물던 것을 손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상상력+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상대원시장프로젝트에서 놀토공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물론이고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이라는 공간자체가 상인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곳이니 만큼 어린이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이 공간을 더 시장답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놀토공작을 진행하면서 한유진님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학교는 물론 학교 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놀토공작 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한 만큼 이 놀토공작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대원시장 속의 꼬마시장

어린이들이 상대원플라자 지상 주차장에서 연 벵룩시장



- 01 이수진 어린이가 자신의 '와글와글 가게'에서 '세일'을 흔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 02 노트에 대해 열심히 설명 중인 한 어린이
- 03 한 어린이가 자신의 '고운가게' 간판을 들여보이고 있습니다.
- 04 판매 상담중인 한 어린이
- 05 꼬마시장 전용화폐
- 06 꼬마시장 풍경
- 07 한 어린이가 "열쇠고리 사세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상대원 시장에는 또 하나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상대원동의 어린이들이 상대원플라자 지상 주차장에 동지를 틀고 '꼬마시장'을 연 것입니다. 이 '꼬마시장'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점차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각종 물건들을 판매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상대원시장과 상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는 공동체를 통해 경제를 학습하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깨끗하게 손질한 중고상품(?)들을 돗자리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예쁜 간판과 가격표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상품을 얼마에 팔지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은 손님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자 저마다 "세일"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안팔리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시장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들 중 "오픈세일", "대박세일"에 이어 "완전세일"을 외치고 있는 이수진 어린이의 목소리가 유독 큼니다.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좀처럼 외치기 힘든 말들을 쉽게 쏟아내며 꼬마시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이수진 어린이는 (엄마인 양희정님

의 말씀에 따르면 결혼 8년만에 얻은) 귀한 외동딸이랍니다. 하지만 상대원 시장 인근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딸인지라 그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이제 비까지 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손님은 늘어 갑니다. 식료품을 배달 나갔던 꼬마시장 맞은편 한 가게의 점원은 자신의 딸에게 줄 만한 팬시용품들을 몇 개 고르고 그 가격을 묻고는 "이렇게 싸게 팔아도 괜찮아?"라고 되묻습니다. 그 점원에게 몇 백원 몇 천원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꼬마상인들에게 몇 백원 몇 천원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수진 어린이는 오늘 시장참여를 통해 2만원이 넘는 '큰 돈'을 벌였고, 이 돈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수진 어린이는 엄마의 선물을 사면서 다시 한번 경제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를 통한 경제순환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 어린이라디오스타

상대원동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 방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3~4시
- 작가겸 DJ : 김성희(김성)님, 김단비, 김민지, 김정민, 유다연, 이민영, 이슬기, 이승주, 이은지, 임은영, 정호연 어린이

## 기획의도

지역 어린이에게 상대원 시장을 통한 문화 활동의 구성의 기회를 제공해 어린이들이 상인은 물론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지역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진행과정

몇 번의 사전모임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최종결정된 4명의 어린이(임은영, 이승주, 김정민, 김민지)들이 작가겸 DJ로 참여해 매주 다른 주제로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은 방송 전 직접 취재활동, 대본쓰기 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1회 사랑방에 모여 김성희님으로부터 방송관련 교육도 받았습니다.

## 결과 및 평가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상인, 지역주민과 만남으로써 상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의 어린시절을 추억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지역문화 생산자로서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방송정보 ▶

### 첫번째 이야기\_어린이 건강토크쇼

정호연, 김단비, 유다연 어린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시는 밥상과 학교급식 등을 통해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고,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판매 중인 불량식품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그 후 이들 어린이들은 두부샌드위치, 조랭이떡 궁중 떡볶이, 김치떡 등 어린이 성장발달에 좋은 몇 가지 음식들과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두번째 이야기\_“부모님 이리저 마세요~”

어린이라디오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어린이들이 또래와 상대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부모님이(혹은 부모로서) 제일 자주하는 잔소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날의 진행자인 임은영 어린이가 게스트인 김민지, 김정민, 유다영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날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공부는 꼭 필요한 만큼 알아서 하고 있다면서 공부하는 간간히 TV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니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 부모님이(혹은 부모로서) 제일 자주하(시)는 잔소리는?

- 1위 공부해!!
- 2위 TV 그만봐!!
- 3위 게임 그만해!!
- 4위 실좀째!! 또는 실좀찌!!



**세번째 이야기\_어린이 수다방**

이승주 어린이가 진행자로 여러 어린이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이러한 고민에 대해 김성희, 우정인님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은지 어린이의 고민,**

“내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해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니 슬퍼요. 그리고 교복을 입어야 하니 다이어트도 해야 해요.”

**Solution** 친한 친구들과 함께 통통한 살도 잘 커버할 수 있는 예쁜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원서를 같이 써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단비 어린이의 고민,**

“친구들이 싸워서 뒷처리 하느라 힘들어요.”

**Solution** 같이 얘기할 기회와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은지 어린이가 전한 박유진 어린이의 고민,**

“학원숙제가 너무 많아서 놀 시간이 없어요. 난 좀 베껴려고 해도 답안지도 없고...”

**Solution** 최후의 방법은 같은 문제집을 서점에서 찾아 답안지를 살짝 보는 것이지만, 그리 권장만한 것은 못 됩니다.

**김단비 어린이가 전한 한 친구의 고민,**

“핸드폰 비밀번호를 잊어 버리는 등 건망증이 심해서 고민이에요.”

**Solution**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번째 이야기\_어린이 장기자랑**

김민지 어린이를 진행자로 세 명의 어린이가 저마다의 장기를 뽐냈습니다. 먼저 취미 삼아 창을 하고는 한다는 임은영 어린이가 ‘새타령’을 불렀습니다. 또한 김단비, 이은지 어린이가 이은지 어린이의 핸드폰 벨소리이자 요즘 유행곡인 이은미의 ‘애인있어요’를 불렀고, ‘언덕위의 내 집’을 플룻과 리코더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2년 전부터 플룻을 배우고 있다는 김단비 어린이는 홀로 산타루치아를 연주해 멋진 플룻 독주 솜씨는 뽐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교회에서 1년 6개월 가량 플룻을 배우고 있다는 이승주 어린이가 플룻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연주해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다섯번째 이야기\_도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이은지 어린이를 진행자로 퀴즈쇼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날 퀴즈쇼에서는 김성희님이 낸 년센스 퀴즈, OX퀴즈 등 1백여 가지 문항에 대해 이승주, 김민지, 김유진이 도전해 김유진 어린이가 우승했습니다.

**여섯번째 이야기\_상대원 어린이 다크스**

김정민 어린이를 진행자로 요즘 어린이들의 현실에 대해 다뤘습니다.

**첫 번째 소식.** 담배의 유래와 그 위험성을 전하면서 그간 보거나 들은 어린이 흡연 문제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김단비 어린이

**두 번째 소식.** 구타, 왕따, 욕, 일진회 등 어린이 폭력 문제를 다뤘습니다. - 이슬기 어린이

**세 번째 소식.** 중국 펠라민 파동, 미국 소고기 파동 등으로 안전 먹거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22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 어린이들은 햄버거, 치킨, 피자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영양사를 인터뷰 해 본 결과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우유, 치즈, 밀치 등을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이민영 어린이

**네 번째 소식.** 우리 동네 어린이들은 주로 어떤 곳에서 노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네 어린이들은 노래방, 영화관, 놀이터, PC방, 남한산성 등에서 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민지 어린이

**일곱번째 이야기\_어린이 수다방**

이 날 방송은 ‘어린이라디오스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고민과 그 어린이들이 취재한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고민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김성희, 우정인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민 어린이의 고민,**

“중국 펠라민 파동으로 제 간식거리가 없어졌어요(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Solution** 직접 만들어 먹거나 원산지, 공급처, 유통기간 등을 조목조목 따져서 간식을 구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단비 어린이의 고민,**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Solution** 샴푸나 린스를 할 때 두피 마사지도 함께 해 주면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슬기 어린이의 고민.

“TV를 시청한 뒤 방에 들어갈 때 이곳 저곳 부딪치는 등 너무 멀렁거려요.”

**Solution** 나이가 들면 그 증상(?)은 점점 감소됩니다. 다만 자꾸 다치는 것이 문제라면 자주 부딪치는 곳에 충격완화장치(?)를 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승주 어린이가 취재한 민당정육점 임경숙님의 고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공부를 안해요.”

**Solution**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독서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를 통해 언어능력이 좋아지면 따라서 공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어린이가 취재한 쌍둥이기름고추 박현수님의 고민.

“손님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Solution**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상대원 시장이 더 아름답게 변한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상대원 시장을 찾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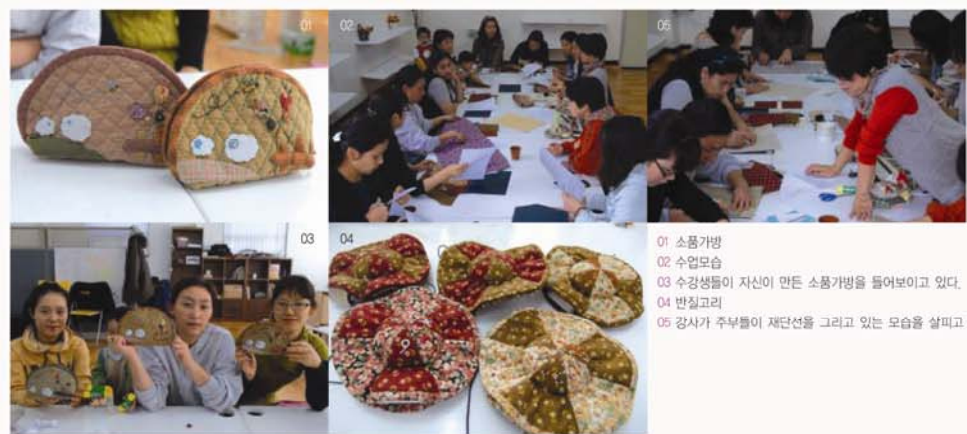
이민영 어린이가 취재한 대왕숯불갈비 000님의 고민.

“대왕숯불갈비보다 보름달호떡이 더 잘 팔려요.”

**Solution** 너무 맛있으니 하는 수 없습니다.



♪♪♪♪♪  
 엄마, 아빠 내가 바로 라디오스타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라디오스타  
 우리 모두 함께 해요 라디오스타  
 우리 모두 함께 해요 라디오스타  
 엄마, 아빠 내가 바로 라디오스타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라디오스타  
 ♪♪♪♪♪



01 소품가방  
02 수업모습  
03 수강생들이 자신이 만든 소품가방을 들여보고 있다.  
04 반질고리  
05 강사가 주부들이 재단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 퀼트배움터

상대원동 주부들의 퀼트 커뮤니티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 강사 : 강현희님



### 기획의도

상대원 시장 내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 마련된 사랑방에서 진행된 '퀼트배움터'는 지역 주부들에게 문화체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 편, 상대원시장의 주 타깃고객인 지역 주부들에게 상대원 시장 및 이번 프로젝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도전과제

'퀼트배움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공감해 저렴한 강사료로도 주부들에게 충분히 퀼트를 가르칠 만한 강사를 섭외하여야 했지만, 공공컨텐츠예술 기획 · 진행팀은 강사섭외에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결국 공공컨텐츠예술 기획 · 진행팀은 지난 번 문화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퀼트를 배웠던 은행동의 한 주부를 섭외해 '퀼트배움터'를 진행했고, 그렇게 은행동에서 탄생한 문화공동체는 상대원동까지 연결되었습니다.

### 내용

이 십 여명의 주부들은 강사인 강현희님의 지도 아래 퀼트 기본기 및 반질고리, 소품가방 등 그 능력에 따라 2~3가지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작품들은 지난 12월 29일 마음잔치 때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 전시되었습니다.

### 결과 및 평가

퀼트는 많은 여성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수공예 분야 중 하나이지만 그 재료가 워낙 고가여서 쉽게 배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예를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퀼트배움터'는 큰 성공을 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퀼트배움터'를 수강한 주부들이 수업 후 자연스럽게 상대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상대원 시장의 매출 증대에 '퀼트배움터'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줌마DJ

5명의 줌마DJ들(박미향, 양희정, 백현아, 박영연, 김희순)이 원다방에서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줌마DJ의 작가인 노지환님 등으로부터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 한편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코너로 줌마DJ를 운영할지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 날 모임에는 '상대원 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취재하기 위해 나온 'MBC 생방송 화세집중' 팀이 줌마DJ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줌마DJ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촬영분 중 줌마DJ 관련 부분이 이른바 '동편집'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줌마DJ들은 다음에는 또 동편집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줌마DJ로서 활동했습니다.

줌마DJ들은 라디오 DJ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매주 한 차례 1~2시간 씩 교육을 받는 한편 매주 화요일 3~4시까지 노지환 작가와 함께 줌마DJ란 코너를 운영하면서 주부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이 시간을 풍성하게 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에도 줌마DJ들은 라디오 편지, 상대원 시장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줌마경제학 등과 같은 다양한 코너를 기획 ·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나는 상대원시장

# 라디오방송국

5부





사업개요

# 인터넷라디오방송

상대원시장 내에 설치된 다매체 복합 문화공간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이 진행한 라디오 방송은 시장 내 각 상점에 설치된 스피커와 함께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한 라디오 방송으로써,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기획의도

이 인터넷 라디오방송은 생업으로 인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가 어려운 상인 및 지역주민이 상대원시장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진정한 지역 소통의 장, 즉 커뮤니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b>시즌1_</b> 9월 1~19일	방송기반 조성 기간으로 시범방송 스튜디오 설치와 라디오방송 환경 구축, 라디오 방송 스템 구성, 라디오 편성 및 장비 테스트 후 3일간 시범방송	<b>프로그램</b> 책 읽어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상대원홍소핑 상대원슈팅 앵남마켓에 줄머디 사랑방클럽이야기 그 사람을 만나다 어린이라디오스타
<b>시즌2_</b> 9월 20~30일	장비 테스트와 라디오 편성, 점검, 20일 개국 전야제를 시작으로 방송	<b>프로그램</b> 책 읽어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오스오스할요일 누님니우스 상대원수다방 줄머디 아름다운클래식음악이 있는 곳 사랑방클럽이야기 그 사람을 만나다 어린이라디오스타 상대원홍소핑 상대원드라마
<b>시즌3_</b> 10월 1일 ~ 12월19일		<b>프로그램</b> 책 읽어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누님니우스 상대원수다방 줄머디 아름다운클래식음악이 있는 곳 사랑방클럽이야기 그 사람을 만나다 어린이라디오스타 상대원홍소핑 상대원드라마
<b>시즌4_</b> 12월 20~30일	방송정리 및 방송국 이양-방송 매이터 정리와 라디오 방송국 이양작업에 따른 장비 교육	<b>프로그램</b> 책 읽어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누님니우스 줄머디 아름다운클래식음악이 있는 곳 어린이라디오스타 상대원홍소핑 상대원드라마



▲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홍보물



▲ 정상우(공동예술감독), 박선영(공동예술감독), 장윤실(상대원 홍소핑 작가), 김성재(어린이라디오스타 작가), 노지환(줄머디 작가), 정수미(사랑방클럽이야기 작가)(왼쪽부터)

도전과제

어떻게 생업에 바쁜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라디오방송의 기획·실행팀인 바셀린 프로젝트는 인터넷 라디오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작가와 DJ들이 직접 상대원 시장에서 배포하는 한편, 시장 내에 스피커와 신청곡함을 설치해 상인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상대원 홍소핑, 상대원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인들이 인터넷라디오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진행결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소통구조를 가진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은 지난 수개월 간에 걸쳐 상인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청취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지역형 인터넷 라디오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종료 이후 자연스럽게 상인 및 지역주민으로 방송국 운영이 이양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 라디오 방송 한눈에 보기

6월

- 10-18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안 연구
- 23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안 최종 확정 및 공고

8월

- 26 인터넷라디오방송 부문 프로젝트 실행, 기획팀으로 바셀린프로젝트가 최종 선정, 계약

7월

- 24 프로젝트 기획안 공모에 따른 심사 결과 발표에 따라 바셀린프로젝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9월

- 1-22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설치 및 기반조성
- 4 인터넷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업체 계약
- 10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 '상대원시장 라디오 액션'
- 17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인테리어
- 22 인터넷라디오방송 개시
- 22-10,4 인터넷라디오 방송 1시즌

10월

- 6-11,1 인터넷라디오방송 2시즌 방송
- 16-12,19 줌마 DJ
- 8-12,19 어린이라디오스타
- 10 상대원시장 음악회 개최 관련 상인동의회 수렴
- 13-14 MBC TV 화제집중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 촬영
- 15 MBC TV 화제집중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 방영
- 21 인터넷라디오방송 스피커 설치 현황 작성
- 24 인터넷라디오방송 '노래들려주는 시장' 공개방송
- 27 인터넷라디오방송 이양 작업 시작

11월

- 1-30 인터넷라디오방송 3시즌 방송

12월

- 1-19 인터넷라디오방송 4시즌 방송 & 방송 주관 이양 진행
- 2 방송 이양팀 기술교육
- 3-18 1-4차 인터넷라디오방송 주관 이양 회의
- 4 SBS TV 모닝와이드 3부 방영
- 15-19 현 기획팀과 이양팀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 19 홈페이지 관리법 및 관리자 명의 이전
- 22 이양팀(참주부) 시험방송 개시
- 22-2,27 이양팀 시험방송



방송 준비 중인 정상우(왼쪽), 권승찬(오른쪽)님

#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출발!!!

쇼핑카트에 라디오를  
싣고 '보이는 인터넷라  
디오를 상징적으로 보  
여준 박선영(박복태)님



인터넷 라디오방송은 지난 9월 10일 추석행사와  
맞물려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개국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는 '라디오 액션'을 주제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인터넷라디오에 대해 널리 알려 청취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기획·실행팀인 바셀린 프로젝트의 정상우님은 권승찬님과 함께 각종 방송장비를 상대원플라자 앞에 펼쳐 놓고, 인터넷라디오방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대원시장 상인 및 이 날 상대원시장을 찾은 이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바셀린 프로젝트의 박선영(박복태)님은 쇼핑 카트에 라디오를 싣고 이 날 정상무, 권승찬님이 상대원 플라자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을 가게마다 찾아 다니면서 들려 주는 한편, **머리부터 발끝까지분홍색으로 차려입고 역시 같은 옷차림인 허윤경, '아아'님과 함께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개국을 알리는 멋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상대원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들은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개국으로 상대원시장 내에서 지역밀착형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라디오방송을 인터넷으로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선영, '아아', 허윤경님은 앞으로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에서 방송하게 될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를 통해 알파 몸짓으로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책 읽어 주는 시장

- 방송일시 : 매일 오후 12~1시
- DJ : 함께하는 주부모임

지역 주부들이 어린이 동화, TV 동화, 옛날 동화, 수필, 시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직접 읽어 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늦게까지 지나를 허다 보니 아이들과 애가할 시간이나 이야기 꺼려 가 없었지요. 그걸 알던 어느 날, 아이에게 그 날 책 읽어주는 시장에서 소개된 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재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는 다시 그 책에 대해 물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이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시장을 열심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 시장야채의 박정미님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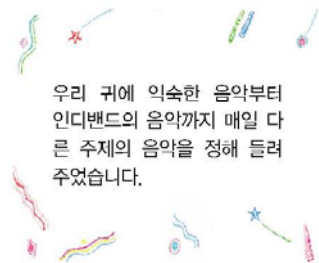
지역 주부들이 직접 책을 읽어줌으로써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청취자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문화공동체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 결과 및 평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는 책들은 대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상인들 역시 이 프로그램을 꽤 좋아했습니다.

# 노래 들려주는 시장

- 방송일시 : 매일 오후 1~2시
- 작가 겸 DJ : 박선영(박복태)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부터 인디밴드의 음악까지 매일 다른 주제의 음악을 정해 들려 주었습니다.

## 기획의도

노래 들려주는 시장은 상대원시장 상인들이 장사 준비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 시간에 일종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시간 후에는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상대원시장 상인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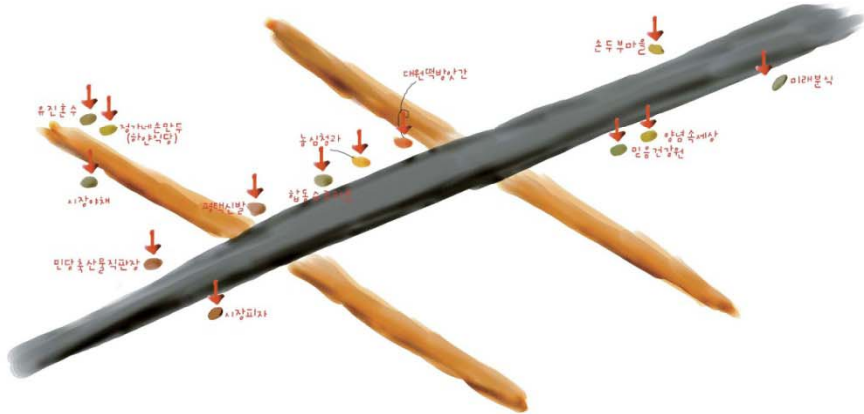
## 진행결과

점심시간에 상대원시장 상인들에게 음악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데 대해 상대원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의적절한 방송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행가요 중심의 기존 라디오 방송에 비해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흥미있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 상대원 흡쇼핑

상대원시장 내 상점소개 코너

- 방송일시 : 월, 수, 금 오후 3~4시
- 작가 겸 DJ : 장윤실



### 방송정보 ▶

#### 10월 17일 농심청과(과일백화점) + 민당정육점

고소한 김 냄새와 향긋한 과일 냄새가 함께 머무는 곳, 이곳은 과일 백화점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호떡도 맛 볼 수 있습니다.

민당정육점은 8년차 부부가 함께 하는 올해 8살 난 정육점입니다. 양동식, 임경숙님이 결혼을 하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결혼 연수랑 가게 나이가 같다는 재미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당정육점에는 안심하시고 먹을 수 있는 산지직송 생고기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두메 산골까지도 직접 가져 온답니다.



#### 10월 20일 믿음건강원 + 시장야채

한약냄새 때문인지 이(믿음건강원) 앞을 지나기만 해도 왠지 건강해 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냄새를 조금 맡아서인지 믿음건강원의 대표인 주봉철님의 혈액은 유난히 좋습니다. 그런 주봉철님은 10년 전 믿음건강원을 인수해 지금까지 각종 약재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철님께 요즘에는 어떤 한약을 먹어야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주봉철님은 요즘 같은 환절기는 기관지를 보호하는 한약을 권할만하다면서 하지만 그 어떤 약도 약을 먹는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내 건강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야채의 박정미님은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휴무인 일요일은 왠지 허전할 만큼 어느새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팬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자녀분들과 '책 읽어 주는 시장'에서 방송된 책 얘기를 나눌 만큼 말입니다.

그런 박정미님이 운영하는 시장야채는 특히 퇴근 시 시장에 들려 장을 보는 취업주부들을 위해 깔끔하게 손질된 야채만을 판매합니다. 사실 하루 종일 야채를 다듬어야 하는 만큼 손마디 하나 생한 곳이 없지만 박정미님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 10월 22일, 합동슈즈타운

노병술·박명옥님은 첫 아이 둘 무렵 이 곳 상대원시장에서 시작해 그로부터 30년 후인 지금까지 상대원시장의 한 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을 수 있는 모든 신발이 갖추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을 노병술·박명옥님, 다시 30년 뒤에서도 이곳에서 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10월 27일, 정가네손만두(하안식당)

우리 상대원시장 안에는 유독 하안(?)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는 바로 하안식당으로 지난 30년 간 한결 같은 음식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음식 맛은 이제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10월 29일, 손두부마을 + 유진훈수

두부마을은 1년 전 이 곳, 상대원시장에 둥지를 튼 새내기 가게입니다. 매일 매일 두부와 손두부를 만드는 두부마을의 임윤식님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두부와는 다른 특별한 두부를 만들어 낸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두부와 손두부 외에도 청국장, 김, 묵, 장아찌 등 입맛을 돋굴 만한도 판매합니다. 특히 탄력이 있어 묵 넘김이 좋은 묵은 한 번 꼭 드셔 볼만 합니다.



유기삼님의 성인 유, 진옥연님의 성인 진. 이렇게 두 자를 합해 이름을 붙였다는 유진훈수는 지난 30년간 상대원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대원시장의 터주대감입니다.

유진훈수가 이처럼 오랫동안 상대원시장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골손님들이 변함없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진훈수의 진옥연님은 한복을 맞추러 온 손님 한 분 한 분의 치수를 직접 재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 특징이나 나아가서 꼼꼼히 메모에 한복에 반영하는 등 고객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거든요.



### 10월 31일, 미래분식

이은식님은 그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떡볶이를 좋아했고, 그런 남편을 위해 진영애님은 종종 떡볶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미래분식의 문을 열게 됐답니다.

그래서인지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남편처럼 아니 가족처럼 느껴져 그다지 살갑게 대하지 못한다(?)는 진영애님은 그래도 임신한 새댁들한테만큼은 그 누구보다 살가운 큰언니이자 엄마입니다. 임신 후 떡볶이가 당기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 11월 7일, 양념속세상

양념속세상이란 이름은 이 가게의 대표인 한희수님의 딸이 지은 이름으로 우리는 양념속세상이란 가게 이름만으로도 양념의 속속들이 배어 있는 각종 고기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희수님은 가족들을 위해 집에서 요리하는 것처럼 각종 한약재를 다린 물에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해 양념된 돼지갈비, 소불고기, 닭갈비, 고추장돼지불고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아도)맛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손님들이 너무 맛있으며 식당 창업을 권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여쭙어 봤습니다. 한희수님은 양파와 사과, 키위 등 각종 과일이 충분히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천연양념이니 만큼 양념을 버리지 말고 꼭 밥을 비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1월 28일, 대원떡방앗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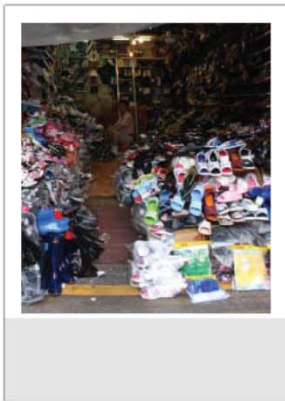
결혼과 함께 대원떡방앗간을 시작해 이곳에서 자식을 낳아 키우고 벌써 손주까지 보신 사장님은 요즘 손녀인 채연이의 재롱에 힘든 줄 모르고 일하신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찾는 손님이 없었던 때도 드물지만 지난 30년의 삶을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남은 삶도 이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합니다.



## 12월 4일, 평택신발

작은 아기신발부터 동네할아버지가 즐겨 찾는 하얀 고무신, 장화, 등산화, 구두 등 온갖 신발이 다 모여 있는 상대원시장의 '평택신발'. 오래전에 폐어버려 건판이 없어도 인근 상대원시장을 찾는 사람이면 삼척동자라도 아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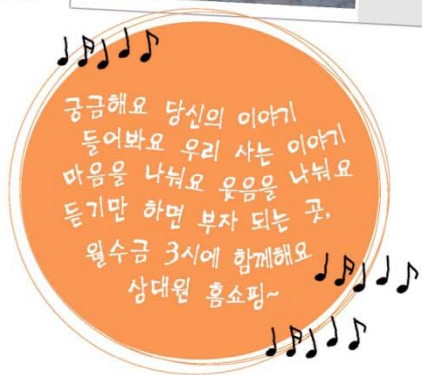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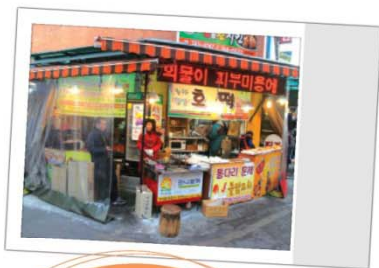
"1974년 즈음 상대원시장이 형성됐어요. 그 당시엔 말 그대로 재래시장이었는데, 지금의 모란시장을 연상하면 되겠네요. 당시엔 장사도 잘되고 정말 대단했어요"라며 손용일 사장은 "그래도 상대원시장이 전통적인 시장인데,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고 바랐습니다. 20대 초부터 신발 장사를 한 그는 "제 인생을 신발과 함께 해 왔습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아침 7시에 매장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신발 가게의 하루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아가지만 그래도 이곳에는 그의 인생이 있습니다.



## 12월 11일, 시장피자

시장피자는 약 4개월 전 '상대원 시장 문화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시장피자의 김연호님의 형님이 대광아쿠아랜드 운영 하는 김국남님이라 이 곳 상대원 시장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게 일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좋은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김연호님은 가족과 함께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 상대원 수다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주 다른 주제의 설문을 실시해 작가가 그 순위를 방송을 통해 밝히는 형식의 프로그램

- 방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 작가 겸 DJ : 이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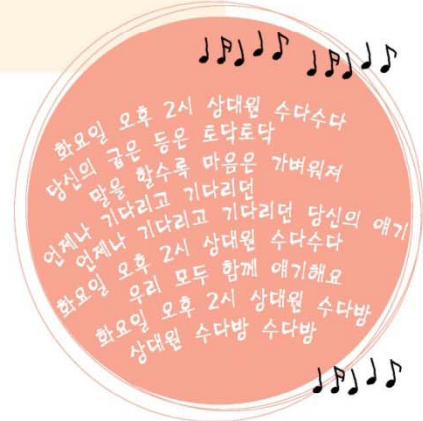
### 방송정보 ▶

### 시장에 이런 '비호감' 상인 꼭 있다.

- 1위 물건(음식)에 대해 물어도 통명스러운 상인
- 2위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상인
- 3위 물건(음식)을 살 때 담 안 꺼주는(깎아주지 않는) 상인
- 4위 살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상인

### 내 배우자가 최고 멋져(혹은 예뻐) 보일 때

- 1위 내 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때
- 2위 내 남편(부인)은 항상 멋있다, 예쁘다
- 3위 기념일 날이나 특별한 날에 멋진 혹은 예쁜 모습이 보여줄 때
- 4위 금전적으로 유쾌하게 해주었을 때







장갑순 어르신(왼쪽), 김금순(가림, 가운데)어르신이 이정은 작가(오른쪽)에게 삶의 애환을 풀어 놓고 계십니다.

# 옛날 옛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 방송일시 : 10월 7일 ~ 28일 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작가 겸 DJ : 우정인, 이정은

♪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화요일 2시 동네 어르신 한데 모여 들려 주시는 옛날 이야기 궁금하면 기억해.

♪ 날 옛적에 키 기울여 잘 들어 봐, 옛날 옛적에 화요일 2시  
 동네 어르신 한데 모여 들려 주시는 옛날 이야기

## 기획의도

‘옛날옛적에’는 오랫동안 상대원동에 거주해 왔고 지금까지도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회고담 및 현재의 이야기 (취미 생활이나 노인정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상대원동의 역사와 그 속에서 지난 날 꽃피웠던 어르신들의 살아오신 삶의 모습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도전과제

어르신들이 ‘방송’이라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어르신들 섭외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DJ나 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결국 이 프로그램은 ‘상대원 수다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진행결과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는 다소 진보된 매체를 통해 세대간 소통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정보 ▶▶▶

그 **첫 번째**, 작가와 DJ, 할머니를 추억하다

**이정은 작가가 추억한 그녀의 외할머니**

“할머니께서 항상 밥을 꼭꼭 눌러서 담아 주셨던 까닭에 외갓집에 갈 때마다 배탈이 나기가 일쑤였지요.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잠이 들 때까지 배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하셨는데 그때마다 할머니의 거친 손에서 엄마의 보드라운 손보다 더 따뜻한 뒤통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훨씬 후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할머니는 꼭꼭 눌러 담은 밥에 저에 대한 사랑과 정도 꼭꼭 눌러 담으셨던 것이지요.”

**박선영(박복태) DJ가 추억한 그녀의 할머니**

“현관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할머니께서 오빠한테 ‘선영이 나갔다, 항수육이나 시켜먹자’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힘겨워 살게 된 할머니께 제 방을 내어 주고 발코니에 책상을 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 **두 번째**, 상대원 제1경로당에서 만난 두 어르신

30년 째 이 곳을 지키고 계시며 줄곧 상대원 시장을 이용해 오신 장길순 어르신(82, 고향 평택), 김금순 어르신(가명, 77, 고향 해남)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길순 어르신은 상대원 시장에서 장사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비록 자신의 가족들은 장사가 안돼 상대원 시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지만, 요즘 상대원 시장은 옛 활기를 다시 찾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금순 어르신(가명)은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아이들을 공부시켜 출가시켜 남편이 떠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만큼 가족의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라고 옛 상대원동을 추억했습니다.

그 **세 번째**, 인터넷으로 날아온 두 가지 사연

“얼마 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 단 하나 뿐인 혈육인 오빠를 한국전쟁 때 떠나 보내고, 그 오빠를 평생 그리워 하면서 사셨는데...이제 또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 남해윤님

“해병대에 지원하여 7번이나 고배를 마시고, 8번째 지원하던 날 꿈에 어릴 적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뵈고 불었어요. 다시 한 번 꿈에 외할아버지를 뵈는다면 경찰 공무원 시험도 무사히 볼지 않을까요?”

-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

작가가  
작가를 뒤쫓다,

이정은 작가와 함께 찾은  
상대원 제1노인정,  
그 뒷이야기...

지난 10월 10일 이정은 작가와 저(본 책의 작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고민하다 주위 분들의 추천으로 상대원 제1노인정(이하 노인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정에 오르며 우리는 5분만 걸으면 된다'는 주위 분들의 말을 믿은 것을 10분 즈음은 후회해야 했습니다. 상대원시장 맞은 편 골목 꼭대기에 위치한 노인정은 헬기왕성한 우리 둘 젊은이들도 죽히 십 수 분은 걸어야 하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곳을 오르내리실까?' 걱정이 될 만큼 가파른 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꽤 긴 숨을 헐떡인 끝에 간신히 노인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원래 낯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저희들을 피해 다니시기에 바빴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누굽니까.

벌써 30년 째 이 곳을 지키고 계시며 줄곧 상대원시장을 이용해 오신 장길순 어르신(82, 고향 평택), 김금순 어르신(77, 고향 해남)을 섭외하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장길순 어르신(82)은 남편과 시누이, 조카 모두 상대원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적이 있을 만큼 상대원시장과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때 주변 상권에 밀려 있다가 요즘 다시 활기를 찾은 상대원시장을 그 누구보다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시답니다.

또한 18살에 결혼했다는 김금순 어르신(가명, 77)은 아들만 셋을 낳아 키워 이곳 상대원동에서 출가시켰으며 지금은 안 계시지만 남편분과도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금슬 좋은 부부로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남편분이 바람을 피울 때는 한없이 미우셨다네요. 그래서 그 바람, 어떻게 잡으셨나 여쭙었습니다. 이에 김 어르신께서는 여자 특유의 육감으로 남편분의 바람을 감지했던 어느 날,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집 안 한가운데 말없이 쪼그리고 앉아 계셨다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 없이 집에 들어서면 남편분은 경말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하네요. 살아 온 지난 긴 세월만큼이나 사연도 많아 셋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셨다며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 어르신은 계속 머느리와 손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셨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는 두 분 모두 자식들이 출가하고 남은 빈 자리를 홀로 지키고 계십니다. 휴여 쓸쓸하시지나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는데,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싶을 때 텔레비전 보고 자고 싶을 때 실컷 자는 현재의 생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으시답니다.

이렇게 두 어르신의 살아 온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시간은 훌쩍 훌쩍고, 우리 두 작가는 “도 와” 하시던 두 어르신의 웅진 쓸쓸한 모습을 뒤로 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방콕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 사랑방 클럽이야기



상대원시장 상인 및 상대원동 주민들에게 사랑방문화클럽 소속 동호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방송일시 : 매주 수요일 12~13시
- 작가 겸 DJ : 정수미

**기획의도** 직장인, 주부 중심의 동호회들 모임인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상대원시장 상인, 상대원동 주민들의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라디오방송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을 소개함으로써 상대원시장 상인 및 상대원동 주민들의 여가개발과 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 문화공동체의 밑거름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전과제** 사랑방클럽이야기가 방송되는 수요일 12~13시에 '상대원 사랑방 원대방'에 설치된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 스튜디오로와 줄 동호회를 섭외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들과 상대원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내용**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고은이오(참석자 김숙자), 풍물굿패 두렁(참석자 문정숙, 홍선희, 문현숙), 윈드매니아(참석자 민원기, 박순희), 분당여성합창단(참석자 김인숙, 최미호), 탄천색소필(참석자 김천복),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참석자 김형미) 등 음악, 주부 중심의 동호회가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라디오방송국에서 직접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 이른바 '생음악'으로 상대원시장 상인들과 때마침 상대원시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진행결과**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의미는 몇 해 전부터 성남 문화공동체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과 상대원동 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수미 작가는 어떤 동호회를 섭외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인들의 의견을 꾸준히 묻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 상대원 드라마



상대원시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만들어 상대원시장 상인, 지역주민, 프로젝트운영진이 직접 이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 작가 겸 DJ : 이정현(이오진)



## 드라마

제목 : 반찬가게 손님과 어머니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 오복반찬

내용 : 어머니와 딸, 그렇게 단 둘이 사는 반찬가게에 외삼촌의 친구가 세를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어머니와 외삼촌의 친구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얀 손수건에 편지 한 장을 넣어 외삼촌의 친구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방송일시 : 9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출연진 : 박선영, 김성호 전문위원, 진성택집 박준호



▶ 출연자 중 한명인 박선영(박복태)님

## 대본 반찬가게 손님과 어머니

### 엄마

남편을 잃고 딸과 동생과 셋이 사는 시장 반찬가게 상인, 옥탑에 세들어 사는 손님이 싫지 않다.

### 복태

엄마와 둘이 살지만 밝고 귀여운 여섯 살 꼬마 아이. 엄마와 손님과과의 이루어 질 수 없는 로맨스를 지켜보며 연신 예쁜 눈망을 굴린다.

### 아저씨

미혼의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 엄마를 좋아한다.

### 삼촌

엄마의 남동생. 엄마와 선생님과과의 로맨스를 은근히 아니꼬워하는 보수적인 스물 한 살 청년. 팬질이

### 기타

큰외삼촌, 친구들.

(기울임 체로 쓰인 복태의 대사는 해설자 역할처럼, 칭취자를 향한 방백)

**복태**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꼬마숙녀랍니다. 내 이름은 박복태이고요. 우리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복태,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조고기 시장에서 저그마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지요. 아차, 큰 입났군, 외삼촌을 뺄놈을 뺄놈을 뺄었으니..... 외삼촌은 올해 스물 한 살난 못 생긴 총각으로, 시장에서 우리 어머니 일을 돕고 있는데, 어디를 그렇게 싸들이다 니는지, 얼굴 보기도 힘든걸요. 깜박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무얼.

**삼촌** (저만치에서)복태야~!!!!!! 어렸나~  
**복태** (삼촌에 대고)응~ 나 여기있어, 삼촌은! 삼촌은 만날 나를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키곤 한답니다. 나는 심부름을 하는 척하다가 몰래 달아나 친구들과 놀러 가곤 하지요. 그러면 삼촌은 쫓아 나서 틀들 거리며 일하다가 엄마한테 꾸중을 들곤 한답니다. 고깃 참 썸통이야요. 흠흠(헛기침) 삼촌이 얼굴이 좀 못나서 그렇지, 상대원시장에 속 지나가면 손님이 한 번씩은 슬쩍 쳐다보는 건실한 총각이니 오해는 마셔요. 저는 절대 우리 삼촌 험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삼촌** 복태야~ 이리 와 바바!  
**복태** 응! 잠깐만요!!! 가끔 내가 왜 엄마랑 삼촌이랑 셋만 사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첫 재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한 지는 삼 년 만이고요. 내가 말도 제대로 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니까,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 해보았지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 생각은 안 나요. 아버지 사진이라는 사진은 나두 한두 번 보았지요. 참으로 훌륭한 얼굴이야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참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잘난 아버지일 거야요. 어머니는 가끔 가게에 내 똥을 오이장아찌를 담가 놓으면서, '복태 아빠가 이 오이장아찌를 참 좋아했는데...' 라고 말씀하시곤 한답니다. 그럴 때면, 장아찌를 담그는 엄마의 눈빛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요. 나는 웬지 와야 하고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서, '어머니, 나 놀이터 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 손살같이 달려나오곤 한답니다. (시무룩해짐)

**엄마** 복태야 어렸니~  
**복태** 앗, 어머니가 날 찾으시나 봐요. 어머니 나 여기있어요~!

(E) 시장소음

**삼촌** 아이고 허리아. 아이고 죽겠네... 어찌나 무거운지... 아이고 나 죽네...

**엄마** 엄살 부리지 마, 고 거 일했다고는... 아까 나는 것갈통 다섯 개 옮겼다!  
**삼촌** 아 누님! 진짜 아프다니깐요! 이렇게 일해갖고 몸 상해서 건장한 청년 하나 군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랬음 좋겠다만...

**엄마** 으이그 으이그...  
**복태**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도 없이 골मे 생겼답니다.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영애니 김태희니 하면서 닮았다고 하대요.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서른 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네 아주머니들이 날더러 '과부 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 많은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 딸'이라나 봐요. 그래도 시장 사장님들이 예뻐라 해주시고, 우리 삼촌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이쁜 어머니가 있으니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 BGM 만화 '캔디' 주제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우리 집 정말 식구는 어머니와 나와 단 둘뿐인데, 아버지가 쓰시던 옥담방이 비어 있으니 까 그 방도 쓸 걸, 또 어머니를 돕기도 편하게 할 걸 해서 우리 외삼촌이 옥담방에 와 있게 되었는데.

금년 봄에는 나를 유치원에 보내 준다고 해서, 나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아이들한테 실컷 자랑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느라니까, 옥담방에서 큰외삼촌이 웬 한 낯신 사람 하나 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외삼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의 큰 오빠 이지요.

**큰외삼촌** 복태야,  
**복태** 큰외삼촌은~~~~  
**큰외삼촌** 복태야, 이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복태** (부끄러워하며) 아잉...  
**아저씨** 아, 그 애기 참 예쁘네. 이 아이가 복태인가?  
**큰외삼촌** 응, 우리 누나 딸..... 매형과 많이 닮았지?  
**아저씨** 복태야, 이리 온, 응! 그 눈은 꼭 아버지를 닮았네그려."  
**큰외삼촌** 자, 복태야, 다 큰 아가씨가 왜 이리 부끄럼을 타나! 어서 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해. 너의 아버지의 옛날 친구인데, 오늘부터 니네 삼촌이랑 같이 니네 옆방을 쓰게 될 거야. 친해 두어야지."

♪ BGM 전환음악

아저씨는 내연이면 내가 입학 할 초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저씨가 마치 우리 아빠와 같이 느껴져서, 괜스리 더 좋았답니다.

복태: 엄마, 옥탑방에서 큰외삼촌이랑 이야기하는 아저씨, 이제 저기 살아?  
 엄마: 응, 그래. 오늘부터 함께 계시게 될거야.  
 복태: 아이 좋아.  
 엄마: 녀석, 뭐가 그리 좋니.  
 복태: 저 아저씨 조조기 있는 초등학교 영어선생님이래. 멋지지 않우?  
 엄마: 애는... 부산 딸지 말아라. 옥탑방 놀러가서 괜히 선생님 빈거름게 해드리지 말고.

♪ BGM 전환음악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옥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보여 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옥탑방에 나가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세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었지요.

아저씨: 복태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누?  
 복태: 음, 나는... 장조림이 제일 맛나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 준 졸깃졸깃 오동통동 장조림! 오아~ 먹고싶다! 장조림! 장조림!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아저씨: 허허허허... 복태 맘과 내 맘이 같네. 나도 장조림이 제일로 맛있더라. 복태 어머니가 만드신 걸로.  
 복태: 앗, 진짜요? 아저씨도 장조림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장조림 많이씩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아저씨: 아, 아니, 그러지 말어.  
 복태: 왜요? 아저씨가 장조림 맛나게 드시면 우리 엄마도 좋아라 할거여요.  
 아저씨: 정말... 내가 맛있게 먹으면... 복태 어머니도 좋아하실까?  
 복태: 그럼요! 엄마는 자기가 만든 반찬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좋아서 반찬가게를 한다고 했는 걸요!

아저씨: 그... 그러니?

BGM

복태: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장조림을 제일 좋아한대."  
 엄마: 조용조용, 떠들지 말어!

복태엄마는 내가 아저씨 이야기만 하면 자꾸 조용하라고 화를 내는 시늉을 해요. 진짜로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데도 말이죠. 그나저나 옥탑 아저씨가 장조림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엄마는 생선 한 근이상 만들어놓지 않던 장조림을, 무려 두 근이나 갖다가 하루 종일 고기를 삶고 달궈 내놓으셨답니다. 엄마도 아저씨가 장조림을 맛있게 먹는 게 좋나봐요.

아저씨가 우리 옥탑에 산지도 한참이나 지났지요. 나는 아저씨가 매우 좋았어요, 외삼촌은 가끔 들들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하루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까지 보았답니다.

엄마: 어데 나가지 필구 집에 있어! 좀 있다 선생님 오시면 옥탑방에 저녁상 내가아지!  
 외삼촌: 제길, 꼭 바를 때만... 저 아저씨 들어온 이후로는 어디 맘 놓고 가지를 못해!  
 엄마: 어찌했니, 너 말고 또 누가 옥탑방에 이걸 들고 들어가겠니?  
 외삼촌: 누님이 좀 상 들구 올라가요. 그 아저씨 보니까 요새 가만가만 누님 얼굴 쳐다보는 것 같드만!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흥얼흥얼 하면서 옥탑으로 올라갔지요.

♪ BGM 상대원 드라마 로고송

랄라라~ 오늘은 유치원에서 신나는 노래를 배웠어요!  
 금요일엔 들어봐~ 상대원 들어봐~ 이히~ 두시에 들어봐~ 두시에 들어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에 왔는데, 오늘 유치원 여자 선생님이 타던 풍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집 뒷방에도 꼬옥 같은 것이 있어서, 나는 집에 오는 길로 엄마에게 가서 물었지요.

복태: 엄마, 이거 풍금 아니우?"  
 엄마: 그렇단다, 그건 어찌 알았니?"

복태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 이것과 똑같은데 무얼. 그런, 엄마두 풍금 탈 줄 아우? 나는 엄마가 이걸 타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엄마가 이거 타는 거 보고싶다우!

엄마 (한숨) 그 풍금은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너희 아버지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너의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그 풍금은 이 때까지 두껍두 한 번 안 열어 보았다.....(울먹울먹)

복태 음... 음..... 엄마, 나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응? 우리 얼른 나가자~

*어머니의 울어버릴 것만 같은 얼굴을 보고는, 나는 그만 껍짝 놀랐지요. 우리 엄마는 울보예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자꾸만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곤 한다니까요. 나는 그러면 늘 이렇게 엄마를 끌고 나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한답니다.*

♪ 전환음악 BGM

*요새는 아저씨가 이상해요.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가는데, 전에 없는 소리를 자꾸 물어요.*

아저씨 복태야, 우리 복태는 눈이 아버지를 꼬옥 닦았다. 고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닦았지, 고 입하고! 응, 그러나, 안 그러냐? 어머니도 복태처럼 콧지?

복태 아저씨, 아저씨는 매일매일 우리 엄마 보면서도 엄마 얼굴도 생각이 안나요?

아저씨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복태가 하루 이쁘니까... 어머니도 이쁘지 않으시니... 그게 다 팔레미가 어머니를 닦아서... 음... 나는 뭐 그냥...

복태 아저씨, 그럼 우리 엄마 보러 시장에 갈까?

아저씨 아니, 아니, 안 돼. 난 지금은.. 아니 난 지금은 정말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복태 아저씨 아까부터 그냥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있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아저씨 음, 복태야! 아저씨랑 그림책 볼까? 옛날옛날 신데렐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음, 복태 오늘 머리를 참 예쁘게 땀았구나!!! 아마도 어머니 솜씨겠지? 어머니는 참 못하는 게 없으시구나!

복태 에이, 아저씨 이제 그림책 그만 보고 나랑 놀러 나가자 응? 어? 삼촌 왔네?

외삼촌 지지배는 맨날 이 방에 와서 놀고 있냐?

아저씨 (헛기침) 복태야, 시간이 늦었구나, 자 이제 내려가 보렴.

복태 어? 아저씨 나랑 산책 가기로 했잖아요! 자, 얼른 내려가요 우리, 빨리, 얼른! (잡아끈다)

아저씨 (헛기침) 아니 애가.. 훌훌... (삼촌 들으라는 듯이) 정 니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나가자!

♪ BGM 음악 이제 우리 사랑하게 된다면

복태 와, 햇님이 반짝반짝해!

아저씨 날씨가 아주 좋구나. 아마 복태랑 나랑 같이 놀러나온다는 거 알고 하늘님이 도와주셨나보다.

복태 와, 아저씨 이 꽃 봐요! 우리 어머니 마냥 예쁘다.

아저씨 허허.. 그래, 꽃이 어머니마냥 정초하고 곱구나.

복태 그치? 이거 따다가 우리 엄마 갖다 줘야 겠다~ 팔리라~ 어? 근데 저게 누구지? 앗!, 아저씨, 내 유치원 친구들이야!

친구들 (멀리서 이들을 발견하고) 안녕, 복태야!!!

복태 앗!, 정인, 성희야!! 놀러 갔다 오는구나? 나도 놀러 나왔는데~ 히히!

아저씨 복태 친구들이라 복태만큼이나 귀엽네! 하하하..

친구들 어, 복태야 니네 아버지서?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그.. 그런데 아니라..

친구들 그럼 복태야 안녕~ 우리 슬래잡기 하러 가아돼~

복태 으응... 잘가 애들아~ (사이) 아저씨, 친구들이 하는 말 들었어?

아저씨 친구들이.. 오.. 오해를 한 것 같구나..

복태 난...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래문 좋겠다..

아저씨 아..아니..!! (당황하며) 그런 소리하문 뭣써!!!!!!!!!!!!!!!!!!!!

복태 아저씨 나한테 왜 화내? 아저씨가 내 아빠하면 안되는거야? 아저씨 미워! 으 아앙(울면서)

♪ BGM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나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했다고만 말한 거였는데, 아저씨는 너무나 화를 냈어요. 나는 아저씨한테 정말정말 실망했어요! 다시는 아저씨하고는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난 번에는 아저씨 손을 잡고 엄마가 이변에 가게에 예쁜 시계를 달아서 같이 구경을 가져고 손을 잡아끄는데, 아저씨가 내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시장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아저씨가 매섭게 놓은 손이 아프기도하고, 아저씨가 나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서러워서 영영 울어버렸답니다. 아저씨는 나도 싫고 엄마도 싫은가봐요...*

♪ BGM 찬송가

엄마랑 나는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가요. 이번 주일에도 엄마와 나는 예배당에 갔습니다. 나는 엄마와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갔지요. 교회에 들어가서 엄마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어기 옆에 누가 자꾸 우릴 쳐다봤어요. 어? 바로 옥탑방 아저씨였어요! 전 바로 엄마에게 말했죠!

복태    엄마! 저기 아저씨가 있어!  
 엄마    뭐, 뭐라고? 복태야, 고개 숙어.  
 복태    엄마 왜 그래? 아저씨가 있으면 안돼?  
 엄마    숫! 조용하고 고개 숙어!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 지더니 교회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를 못했어요.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자꾸자꾸 저어쪽에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아저씨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맨날 장조림을 아저씨 상에다 놓을까요? 아저씨 상에는 장조림이 그릇 가득 담긴답니다. 예전에 엄마는 장조림은 비싸다고 잘 만들지도 않았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 BGM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엄마    복태야~  
 복태    응? 엄마 왜요?  
 엄마    저기, 이 손수건 좀 옥탑방 아저씨 갔다 드러라.  
 복태    응? 엄마한테 아저씨 손수건이 왜 있어?  
 엄마    복태야, 묻지 말고 갔다 드러.  
 복태    응. (사이) 아저씨, 엄마가 이 손수건 아저씨 가져다 주래요.  
 아저씨    어, 그, 그래. 고맙다 복태야.  
 복태    어? 근데 바닥에 뭐 떨어졌다. 이거 편지인 거 같은데?!  
 아저씨    편지? 얼른 이리 줘.  
 복태    아저씨 뭘 그리 급히 뺏어요? 흠.

아저씨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파래졌다가 하얘졌다가 그랬어요. 그 날부터 아저씨는 내가 옥탑방에 가도 잘 놀아 주지도 않고, 나를 볼 때도 괜히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아저씨보고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나봐요. 엄마는 아저씨를 싫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나는 오랜만에 아저씨 방에 놀러갔는데, 아저씨가 커다란 짐을 싸두고 방을 나오고 있었어요.

복태    아저씨, 어디 가요?  
 아저씨    응, 멀리루 간다. 우리 복태 잘 지내라.  
 복태    갔다가 언제 또 오우?  
 아저씨    ....  
 복태    아저씨, 왜 암 말두 없어요?  
 아저씨    복태, 아저씨 가면 이제 아저씨 까먹겠지?  
 복태    아니아. 아니야 아저씨. 난 아저씨 안 까먹어(울먹울먹)  
 아저씨    복태야...

아저씨는 나를 으스스하게 껴 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아저씨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안 올 것만 같아서요. 한참 울다가 지쳐서 방에 내려와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리 유치원 선생님한테 들었던, 너무나 부드러운 풍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금 소리에 잠이 깨어 뒷방에 가보니, 엄마가 혼자서 풍금을 켜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곡조였습니다.

복태    엄마?  
 엄마    복태야...  
 복태    엄마, 엄마 풍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깬어요. 그런데 엄마, 왜 울어?  
 엄마    복태야, 엄마는 너 하나면 된다... 아무도 필요 없어... 엄마랑 복태랑 평생 둘이 살자, 응?

나는 가만히 엄마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다시는 엄마가 풍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 이 대본은 상대원드라마의 작가 겸 DJ인 이오진님이 제공한 것으로, 구어체의 느낌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 가능한 원문 그대로 신도로 노력했음을 밝혀 둡니다.





◀ 이정현(이오진, 왼쪽)과 그의 아버지 이영욱 교수(오른쪽)

**드라마**  
제목: 우리 아빠

**내용:** 아빠와 단둘이 사는 딸은 어느새 엄마처럼 잔소리만 늘어남 아빠가 지겹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섰다가 아빠가 자신에게 쓴 편지를 보고 아빠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방송일시:** 10월17일 금요일 14:00  
**출연자:** 상대원드라마 작가 겸 DJ 이정현(이오진), 아버지 이영욱 (전주대학교 도시환경미술학과 교수님)

**드라마**  
제목: 속웃가게 삼촌

**내용:** 속웃가게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이따금 속웃을 사러 오는 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데이트를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첫 데이트에 성공한 그 날 속웃가게 청년은 그 아가씨에게 속웃한 벌을 산물합니다. 그러나 그 아가씨는 그를 음탕한 청년이라며 외면합니다.  
**방송일시:** 10월 31일 금요일 14:00  
**출연자:** 시장괴자 이성경, 공공컨텐츠예술 감독 이상훈님



▲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속웃가게 삼촌'을 방송 중인 이성경님(왼쪽)과 이상훈님(오른쪽)

**드라마**  
제목: 상대원 연애담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정가네손만두(하얀분식)  
**내용:** 올해로 6년째 연애 중 지호와 수연. 요즘 그들의 연애는 예전같지 않았고 마침내 수연은 지호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잊을 수 없었던 우연히 그들은 처음 만났던 하얀분식을 찾아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방송일시:** 11월 7일 금요일 14:00  
**출연자:** 줌마DJ의 노지환, 그의 여자친구 양수연님



▲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앞에서 자신이 그린 상대원시장 일러스트를 든 노지환 작가



**드라마**  
제목: 상대원시장을 지키는 pk우먼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상대원시장  
**내용:** 가게 좌주기, 장 바구니 들어주기 등 상대원 시장에서 중형무진 활약하는 pk우먼의 활약상  
**방송일시:** 11월 14일 금요일 14:00  
**출연자:** 어린이라디오스타의 DJ 김성희,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엔지니어 우정민(pk),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정삼무님



▲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엔지니어인 우정민(pk, 왼쪽)과 예술감독인 박선영(박복태, 오른쪽)님



**드라마**

**제목 : 상대원 시장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 예쁘다 화장품**

**내용 :** 올해 23살인 언니는 수능을 마친 19살 동생과 함께 동생의 담임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가게에 들립니다. 이 과때 언니는 동생이 화장품 하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형편이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반면 동생은 언니가 이 화장품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알고 아르바이트를 해 이 화장품을 언니에게 사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날 찾은 그 가게에는 그 화장품이 없습니다. 언니가 이미 동생에게 주려고 단 하나 남은 화장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방송일시 :** 11월 21일 금요일 14:00

**출연자 :** '사랑방클럽 이야기'의 작가 정수미님



**드라마**

**제목 : 새댁 vs 주부9단**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 부흥상회**

**내용 :** 서로 이웃인지 알지 못하는 결혼한 지 갓 한 달 된 새댁과 결혼 한지 15년 된 주부9단이 상대원시장 '부흥상회'에서 만났으나 이들 사이에는 작은 다름이 있었고, 이들은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그 날 새댁은 떡을 싸 가지고 인사차 이웃집을 찾았다가 주부 9단을 다시 만나게 됐고, 이에 새댁은 '불편한 이웃으로 지내게 되지 않을까를 내심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부9단이 감자를 싸 가지고 새댁을 찾으려서 이 둘은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송일시 :** 11월 28일 금요일 14:00

**출연자 :** '으쓱으쓱 월요일' DJ인 문효선님



**대본 새댁 vs 주부9단**

남편 자기야, 나 갔다올게~  
 새댁 여보 자기 내 자기!  
 남편 응, 나 불렀어 여보 자기 내 자기?  
 새댁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세요. 자기 올 때까지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게!  
 남편 그래 우리 자기, 내가 돈 많이 많이 벌어들게.  
 새댁 으으응(도리도리) 자기야, 난 돈 같은 거 필요없어. 난 자기만 있으면 돼.  
 남편 정말?  
 새댁 음, 사실 자기랑 럭셔리한 트롬 세탁기만 있으면 돼.  
 남편 아이구 귀여운 것, 나 늦겠다. 다녀올게.  
 새댁 응, 자기야 삐빠~

새덕 (독백)난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 재미에 푹 빠진 새덕이다. 이사 온 지 이틀 된 나의 신혼집은 사랑하는 우리 여보야와 나의 보금자리! 내 친구들은 그렇게 일찍 시집가서 뭐가 좋냐고 하지만, 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우리 자기가 있고,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 있고, 우리 자기를 기다리는 여유롭고 따뜻한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남편 나 간다~  
 주부 어! 어, 가~  
 남편 여보,  
 주부 왜?  
 남편 나3만원 만.  
 주부 용돈 뵈잖아요, 어제.  
 남편 그걸 누구 코에 붙이나?  
 주부 5만원이면 열 명 코에 붙이고도 남아!  
 남편 아, 여보. 왜이러시나. 3만원만 줘. 어제 회사 후배들 밥 사느라 그래.  
 주부 봐줬다. 자, 여기 3만원.  
 남편 고마워 여보! 나 다녀올게~

주부 나는 15년 차 주부. 남편이 벌어주는 쥐꼬리만한 월급 열심히 모아 이 집도 사고, 차도 샀다.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도 다 졸업했고. 한숨 돌리고 나니 어느 내 나이 사십 둘. 하지만, 나의 삶의 끊이지 않는 에너지는 바로 나의 가족! 내가 손만 대면 깨끗해지는 온 집안! 내가 해준 음식은 뭐든 잘 먹는 남편과 아이들의 입! 입! 입!

♪ BGM

상인 자, 부흥상회의 저울맞이 타 바겐세일입니다 세일! 떨어요 떨어!  
 주부 앗, 상대원 시장 부흥상회에서 세일을 하다니! 안 그래도 좋은 상품을 싸게 팔아 좋아하던 가게였는데! 좋아, 이럴 때를 틈 타 주부9단의 정신을 발휘해야지! 야보~  
 새덕 사람이 왜 저렇게 많지? 어? 세일이네? 나도 한 번 구경가볼까?

(사이)

새덕 아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끼어서 죽겠네 예고예고..

주부 아줌마, 왜 꺾는 거예요? 비켜봐요 좀  
 새덕 어머어머!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부 여기 아줌마 말고 누가 더 있어요? 왜 꺾들어요?  
 새덕 아줌마라니요, 아줌마! 지금 저한테 아줌마라고 하신 거예요?  
 주부 아니 아줌마가 꺾드니까 아줌마라고 하지. 내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왜 부르겠어요?  
 새덕 제가 어딜봐서 아줌마예요?  
 주부 결혼 했어요? 안했어요?  
 새덕 했죠.  
 주부 그럼 아줌마네.  
 새덕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상인 저기요! 저기 손님 두 분! 싸움거면 나가서 싸우세요~  
 주부 아유, 좀 비켜 봐요. 나 점시 좀 보게.  
 새덕 어머 기가막혀. (혼잣말) 어파대고 아줌마래. 촌시런 빠글머리를 해가지고는, 어, 이 점시 되게 이쁘다. 이거 사서 여보님한테 밤에 야식 답아 줘야지.  
 주부 어어어? 저기, 아줌마!  
 새덕 네? 아이참, 저 아줌마 아니라니까요.  
 주부 아 알았어, 그럼 아가씨. 그 점시는 내가 아까 맡아놓은건데?  
 새덕 맡아놓은 거라니요?  
 주부 제가 살 것들 따로 빼서 옆에 놓은 거예요.  
 새덕 어머,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주부 이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뽕뽕대네. 이저 좀 봐요, 이 후라이팬이랑, 이 쟁반이랑, 이 점시랑, 세 개 겹쳐 있죠? 그거 제가 골라놓은 거예요.  
 새덕 어머머, 이걸 진짜 사실 거였으면 갖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아줌마가 그냥 무턱대고 우기시는 건 좀 누가 알아요?  
 주부 아니 이 아줌마가. 저기요 아줌마. 아가씨라고 불리고 싶으면 아가씨답게 조금 조곤하게 물어야지, 어디 새파란 아줌마가! 건방지게 속모텔 되는 사람한테 막 말아야!  
 새덕 우리 속모 올해 연세 예순이시거든요!  
 주부 아니 이게, 말꼬리를 물어?

♪ BGM 잠깐

주부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이란... 오늘 목청 터지는 줄 알았네. 아니, 뻔히 말아놓은 걸 말아놓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이젠 접시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격의 문제지. 어쨌든, 접시 하나는 마음에 드네. 음, 그래도 아직 어린 아가씨한테 너무했나?

땡땡땡~♪

주부 누구세요!  
 새덕 안녕하세요~  
 주부 네? 누구시죠?  
 새덕 요 옆 301호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이사 기념으로 떡 좀 둘러려고요!  
 주부 아, 잠시만요. 옷이나 갈아입고 있을 걸, 에이...(사이, 문소리 철컹) 어서오세.... 열레?  
 새덕 안녕하세요.... 어머?  
 주부 아줌마가 301호 이사 온 아줌마요?  
 새덕 네... 아... 안녕하세요.  
 주부 (민망해하며) 자주, 얼굴 마주치게 생겼네.  
 새덕 네. (세침하게) 떡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문 닫히는 소리 철컹)

주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접시 한 번 주고 인심 좋은 옆 집 아줌마 할 걸. 두고두고 서로 불편할 거 아니야. 아유, 역시 요 놀의 좁은 동네. 민망해서 이를 어찌지? 아까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는데...  
 새덕 아, 뭐야 이게~ 큰일 났네. 아까 있는대로 퍽퍽 댔는데. 저 개념없는 아줌마가 우리 옆집 아줌마일 줄이야. 아, 동네에서 싸가지 없는 새덕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으아, 미치겠네 정말. 어떡하지?

다음 날.

땡땡땡~

새덕 누구세요~  
 주부 저 302호 예요!  
 새덕 네? (혼잣말) 저 아줌마가 또 웬일이지. 더 싸울 일 있나?

(철컹 문여는소리)

주부 저기, 새덕!  
 새덕 네.. 안녕하세요.  
 주부 이거, 새로 담긴 김치 좀 갖고 왔어.  
 새덕 어머..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 접시는?  
 주부 어쩐 내가 미안해. 우리 옆 집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좀 잘 할걸. 내가 어제 너무 흥분했던 것 같어.  
 새덕 어, 저기, 음...  
 주부 아직도 마음 많이 상해있는겨? 이 접시, 김치 담기 전까지 한 번도 사용안 한 거니까, 깨끗해. 새 거나 다름 없어.  
 새덕 그런 게 아니라, 음, 저기, 사실은... 저도 어제 죄송했어요. 제가 워낙 못되서..  
 주부 그래그래, 뭘. 결국 내가 이 접시 샀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자, 그럼 이제 우리 얼굴 붉힐 일 없는거다, 301호 아줌마?  
 새덕 아이, 아줌마 아니라니깐 자꾸..

함께 웃는 소리.



**드라마**  
**제목 : 그 가을, 원다방**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 원다방  
 내용 : 혜경에게 15년 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혜경에게 왜 15년 전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다방으로 찾아오지 못했는지 설명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 혜경에게 그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뎠지만 벌써 오랜 세월 혜경의 결만을 지키고 있는 한 남자, 그녀의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일시 : 10월 10일 금요일 14:00  
 출연자 : '으쓱으쓱' 월요일의 DJ 문효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김신, 윤용제님

**드라마**  
**제목 : 백만불짜리 우정**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 : 대왕참숯갈비 앞 호떡집  
 내용 : 호떡을 파는 두 청년이 호떡을 좋아하는 한 아가씨에 반해 둘 중 호떡을 더 많이 파는 아가씨가 그 아가씨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멋진 남자 친구와 함께 호떡 가게를 찾아 옵니다. 호떡 가게 두 청년은 헛물만 켜던 셈입니다.  
 방송일시 : 12월 5일 금요일 14:00  
 출연자 : '대왕참숯갈비' 의 아르바이트생 김관우 군, 이흥주군



상대원동 주민인 이길순님은 상대원동 주민이 꼭 알아줘야 할 성남관련 뉴스와 에피소드를 구수한 목소리로 들려 주었습니다.



# 누님닉뉴스

- 방송일시 : 매주 월요일 3~4시
- DJ : 이길순님

**기획의도** \_ 지역주민이 지역소식을 직접 취재해 자신의 목소리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이슈와 관련 해 지역주민들간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전과제** \_ 어떻게 단순히 지역소식을 전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간 커뮤니티를 이끌 어낼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결과** \_ 이길순님은 지난 날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지역소식을 활기차게 전했습니다. 이에 청취자들은 "그녀가 누구일까?" 라는 단순한 질문은 물론이고 "그녀"가 전하는 지역이슈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누님닉뉴스'를 진행 중인 이길순(오른쪽)님과 연지니어로서 이길순님을 돕고 있는 채정길(왼쪽)님

"원다방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라디오방송 이 상대원시장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상대원시장 상인들은 물론 상대원 시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그러니까 '누님닉뉴스'를 매주 1시간씩 방송 하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큰 희망을 갖게 된 것 만큼 말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 방송에서) 단순히 지역소식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좀더 재미있고 따뜻하며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설픈 진행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을까 한 편으로는 기대도 합니다(웃음)."



뜨개질 강사로 일했던 이길순씨는 원이 넘은 나이에 자유기초가에 도전해 현재 3곳의 매체에서 객원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모니터, DJ에 이르기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맹렬 여성입니다.

- 방송일시 :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DJ : 홍선희, 박선영(박복태)님

# 그 사람을 만나다

성남의 과거와 현재, 즉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 기획의도

성남의 과거와 현재, 즉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성남 지역주민으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 도전과제

어떤 인물을 섭외해야 할지와 함께 이 인물이 스튜디오에 나와줄지를 함께 고민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출연이 번복되기도 했고, 인물이 선정되었는데 그 인물이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할 경우 작가가 한 장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녹음해 방송하는 형식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결과 및 평가

성남의 주요 사건(?)들을 이와 관련된 인물로부터 그 인물의 삶과 함께 풀어냄으로써 같은 지역주민으로써의 동질감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미술가들 뿐만 아니라 문학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했음을 알려 이번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커뮤니티예술에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 방송정보

### 10월 2일\_ 안인기편

안인기 감독(前 KBS 프로듀서)은 지난 해 10월 7일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탄천메인무대, 중앙공원, 남한산성, 희망대공원 등 성남시 곳곳에서 4박5일간 진행된 제3차 탄천페스티벌의 예술감독입니다. 그는 청계천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하천으로 자리잡는 것처럼 탄천이 성남시를 대표하는 하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3차 탄천페스티벌에서 선보일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을 소개했습니다.

### 10월 16일\_ 김지순편

김지순(야탑동)님은 탄천에서의 운동으로 인해 더욱 친숙해진 성남에서의 삶을 '성남이 준 선물'로 원고지에 담아 지난 해 7월 19일 성남문화원이 주최한 '제17회 성남사랑글짓기대회'의 산문성인부분에서 장원했습니다. 결혼, 출산과 함께 떠났던 사회에 몇 해 전 재도전해 현재 청곡여중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이 날 자신의 작품 이외에도 유채은(서당초), 김보민(늘푸른중), 정혜숙(상원여중), 마한길(상일고)님의 수상작과 자신과 함께 성인부분(운문)에서 장원을 한 손종인(상대원동)님의 작품을 낭독하면서 '좋은 책은 좋은 약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 10월 23일\_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작가들편

홍선희, 박선영(박복태)님이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구성하는 기획·실행팀과 작가들이 서로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작가들에 대한 소개도 했습니다.

### 기획·실행팀



▲ 박선영(박복태·예술감독), 정상무(정위상무·예술감독), 우정인(PK·엔지니어(원목부터))

**정상무(정위상무)** \_ 공동감독  
**박선영(박복태)** \_ 공동감독. 박선영님이 몇 해 전 진행한 빨간옥교 프로젝트(?)에 반한 홍선희님의 만남 요청으로 홍선희님과 와인잔을 기울이다 홍선희님의 권유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정인(PK)** \_ 노지환 작가의 소개로 옛날옛적에의 작가로 섭외되었으나, 멋진 엔지니어링 솜씨로 엔지니어로 급선회했습니다.

### 작가(기너더는)

#### 김성희(김성)\_ 어린이라디오스타

강원도 평창의 한 폐교를 무이예술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함께 자원봉사 할 때 박선영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박선영님이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김성희님의 모습을 떠올려 '어린이라디오스타'를 부탁, 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화가인 김성희님은 홍익대학교 근처의 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인근의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문효선\_ 으쓱으쓱 율요일

박선영님의 후배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연출을 전공하고 있으며, 1년간 인터넷라디오방송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지환(노작가)\_ 줌마DJ

김성희님의 소개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이줌마(?)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줌마DJ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성희님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표지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 이정은\_ 옛날옛적에

엔지니어로 변신한 우정인님을 대신해 옛날옛적을 맡게 된 작가로 노지환 작가의 소개로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서사창작과에 재학 중입니다.

#### 이정현(이오진)\_ 상대원 드라마

박선영님이 지인에게 부탁해 정말 어렵게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과 인연을 맺은 작가로 희극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 장윤실\_ 상대원 홈쇼핑

박선영님의 후배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연출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 정수미\_ 사랑방클럽이야기

공동감독인 정상무님의 지인 소개로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현재 미술학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 홍선희\_ 그 사람을 만나다

박선영님을 이 프로젝트에 소개한 후 자신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그 외

정필승(필승작가)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기념품으로 제작한 핑크미카 비누의 제작자



▶ 비누 속에 핑크미카를 넣어 비누를 더 쓰면 핑크미카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0월 30일\_ 이영호편

이 날 홍선희님은 성남시 유일의 식물원인 신구대학식물원을 찾아 이 곳의 운영센터 소장인 이영호님을 만났습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신구대학은 지난 1974년 5개 학과 6백여 명으로 개교해 현재 26개 학과에 7천 여명이 재학 중이며, 신구대학식물원은 지난 2003년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 야생화 전문 식물원으로 그 첫 발을 떤 현재 교재 식물원, 곤충생태관, 어린이 정원, 허브원, 나무 놀이터 등 12개 테마로 이뤄진 3만평의 관람 식물원과 조경가든대학, 환경해설사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3월 31일까지는 휴관입니다.

## 11월 6일\_ 이우민(이런)편

아름방송의 '행복릴레이 우리 마을 이야기'의 MC인 이우민님이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 박선영님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다'를 진행했습니다. 이 둘은 이 날 자신에게 잊혀지지 않는 노래와 그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우민		박선영	
사연	노래	노래	사연
대학생 때 MC해머와 같은 복장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댄 주먹 받았음	MC해머의 유겐터치디스	클라의 날개 잃은 천사	중학생 시절 성당에 함께 다니던 오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습했던 춤
한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에서 인순이의 꿈에 맞춰 춤을 추었으나 방송 전 잘린 가슴 아픈 기억	인순이의 꿈	UP의 뿌요부요	한 멤버의 머리가 마음에 들어 남자처럼 머리를 잘랐다가 남자로 오인받았던 에피소드 소개

## 11월 20일\_ 김기수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1집에 실린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등의 작사, 작곡가로 잘 알려진 김기수(정자동, 무역업)님이 섬의 문턱에서 그 동안 틈틈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로 직접 음반을 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타리스트 겸 기획사 운영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기타와 작사, 작곡의 세계에 심취했던 그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들의 주요 배출처(?)인 서울대학교 동아리 메아리에 입회함으로써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했으나 생업 때문에 이를 잠시 중단했었던 사연을 털어 놓으면서 이번 앨범에 수록한 '수험생인 딸에게 바치는 노래'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로 성남시민 31년 차  
성남엔 볼 것 많지 구경만 와 봐  
성남엔 사연 많지 할 얘기 많아  
내 얘기 들어볼래 우리 이야기  
그 사람 만나볼래 목요일 2시

인터넷라디오 '노래 들려주는 시장' 공개방송

# '상대원시장 음악회'

이 날 행사의 주인공은 상대원동의 명물이라 불려도 좋은 박경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추운 날씨에도 시원한 옷차림으로 그 옷차림만큼이나 시원스레 노래를 불러 장내를 후끈 달아 오르게 했으며 마지막에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한 한 관객과 멋진 커플댄스를 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토록 멋진 그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황진희를 시원스레 불러 유명해진 지역주민으로 이 날 행사에는 그녀를 보기 위해 온 지역주민들이 제법 있어 그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출연

## 내용

오프닝	시그널뮤직, 오프닝멘트
여섯줄사랑	사랑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나는 행복한 사람을 기타로 연주
분당요들클럽	즐거운 산행, 닭의 오들 외곡
샤론클럽	라인댄스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징기저랑	
분당색소폰클럽	첫사랑, 바위섬, 사랑은 아무나 하나
폴 어퀴스틱(랩)	랩 음악
게릴라 郡	B-boy 공연
네임클로버밴드	천생연분, 대중가요메들리
피날레	전체합창 '사랑으로'

● 일 시 :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오후4시부터

● 참여자 : 분당색소폰클럽, 분당요들클럽, 여섯줄사랑, 샤론클럽, 네임클로버밴드, 폴 어퀴스틱, 지역주민 박경숙씨, 오복떡집 박상수씨, 백용릭(사회자, 여섯줄사랑), 박선영(사회자, 인터넷 라디오 DJ) 등

1. '상대원시장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 무대가 설치된 상대원 플라자 저상 주차장에 모인 상대원 주민들
2. 박경숙씨가 부른 '황진희'에 맞춰 춤을 추는 상대원동 주민들
3. 공연 준비 중인 성남문화재단의 전문위원 김성호,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작가 장윤실, 이종필남(왼쪽부터)
4. B-BOY팀 '게릴라 郡'의 공연 모습



1. 황진미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박경숙님
2. 여섯줄사랑의 공연모습
3. 박상수(오복떡집, 오름쪽)님을 소개하고 있는 사회자 박선영(박복태, 백음력님(원복부대)
4. 분당 석소클럽의 공연모습



박정숙씨 외에도 평균 연령 67세라는 사론클럽의 라인댄스, 홀려간 가요를 기타 선율에 담아 구수하게 들려 준 여섯줄사랑 등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히트상품'은 상대원 시장 상인들의 후원으로 이뤄진 추첨식 선물증정이었습니 다. 수십 여 가지 선물로 이뤄졌던 만큼 이 날 자리를 지켰던 관객들에게 골고루 선물이 돌아 가 관객들은 1석2조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다만 선물을 받은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간 관객들이 제법 있어 진행자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들은 쌀쌀한 날씨 탓이라 애써 위로를 했습니다.



사론클럽의 라인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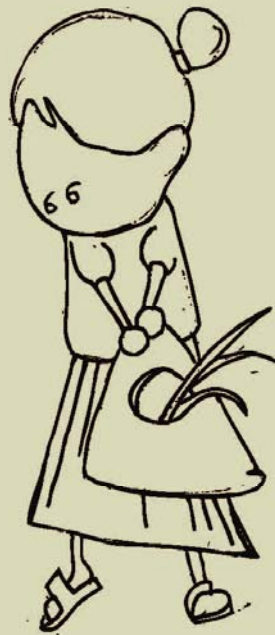
클럽을 열창하고 있는 풀 어쿼스틱의 강희진(the k), 우정인(pk) 님(원복부대)

주는 시장' 공개방송 상대원시장은  
10. 24 (금) 오후4시 장소\_상대원시장 특색문대

신나는 상대원시장

# 또 하나의 책,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6부



## 책 소개



이야기 굵이굵이에 간직된 삶의 숨결,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 하나가 그 마침표를 찍을 때 마다 이 책과 같은 책(일명 프로젝트북)을 세상에 내 놓았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물을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서는 이 책과 함께 '이야기북'이라는 한 권의 책을 더 세상에 내 놓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당초 이번 프로젝트북에 이번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삶은 물론 상대원동 주민들의 삶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북에 담을 내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여기에 상대원동 주민들의 삶까지 녹여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술 채록 전문가이며 서사학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노현님이 이 프로젝트북과는 다른 성격의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는 장노현님이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구술자 선정, 구술 채록과 전사, 그리고 서사의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구술자(기명)	출생연도	성별	상대원 거주	하는 일
구보윤	1963	남	35년	구두수선업
궁태원	1959	남	50년	사진작가
노민숙	1960	여	29년	주부, 부업
민서희	1982	여	27년	학원강사
백자경	1969	여	30년	주부, 봉사활동가
봉준수	1945	남	38년	자영업
엄철희	1953	남	29년	자영업
지석태	1980	남	25년	대학원생

한편 구술자들은 상대원동 거주 기간이 20~50년에 사람들로서 사회적 유명인보다는 평범한 상대원 사람들의 삶의 무늬와 결을 살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5:3으로 맞췄고, 연령은 30세 이하 2명, 30~50세가 3명, 50대 이상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직업과 관심사항 등도 저마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표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님밭 구두세탁소 상대원 구보씨 이야기, 토박이 상대원 궁씨 이야기, 또또기계 아줌마 상대원 노씨 이야기, 못갓춘 마디 상대원 키드 이야기, 석유가게 앞 포장마차 상대원 주부 백씨, 기름고추집 상대원 봉씨 이야기, 그릇가게 상대원 엄씨 이야기, 스물여덟 해 상대원동이 이야기 등 총 8명의 삶이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는 상대원이라는 공간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원동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아마도 이야기의 굵이굵이에 간직된 상대원동 사람들의 깊은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구적 이야기에서 접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저자 인터뷰

### 이야기북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공동체의 씨앗 이 될 터

이 책과 함께 상대원 사람들 중 몇몇의 개인 생애를 이야기로 풀어 낸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이에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의 저자이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노현 박사를 만나 그 작업 과정과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에 담고자 했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2월 2일 한국학중앙연구원(분당구 운중동) 작업실에서 장노현 작가를 만나, 그에게 ‘이 책,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야기 공동체를 위한 씨앗글’로써 이 책을 세상에 내 놓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 작가가 말하는 ‘이야기 공동체’와 ‘씨앗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대원시장프로젝트의 목적은 앞서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다수의 예술가들 즉, 미술가들이 미술을 통해 문화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이에 비해 장 작가 문학을 통해 문화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 작가는 그의 작업, 즉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책이 어떻게 문화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인지에 관심을 뒀습니다.

따라서 장 작가가 말하는 ‘이야기 공동체’란 이야기, 그것도 생애(生涯)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 가면서 소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나 시인 등 직업작가가 쓴 이야기들을 그저 읽는데 혹은 소비하는데 그쳤던 사람들이 이야기의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이야기꾼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 작가 혹은 이웃이 나타나 ‘우리 함께 각자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 서로의 생애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 봅시다’한다면 신뜻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장 작가는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시작, 씨앗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작가는 ‘씨앗글’을 세상에 내 놓기 위해 지난 수 개월간 다양한 상대원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이 구술하는 생애사를 글로 풀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작가는 성남문화재단 모니터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인물들을 찾아내고, 지역주민과 훨씬 친숙한 이들을 인터뷰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한 이야기의 생산에 도전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들이 집필에도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관련 분야의 경험과 훈련이 거의 전무한 이들에게 그것은 다소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온전히 장 작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씨앗글’인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장 작가는 그가 말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보았을까요?

이에 장 작가는 다시 한 번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가 ‘씨앗글’임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씨앗으로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만들어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는 완성된 책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장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상대원동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상대원동을 그들이 뿌리박고 살아가야 할 공동체라 생각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혹은 인제가는 떠나야 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장 작가의 ‘이야기 공동체’만들기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장 작가가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작가 겸 학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작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즐기차게 이야기한 문화공동체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 작가는 구술 서사에 큰 관심을 가진 서사학자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현대문학의 생산과 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생산, 유통, 소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나는 상대원시장

# 작업일지

7부



## 사전준비

### 신나는 상대원시장, 마침내 그 빛이 올랐다

성남문화재단은 현장(상대원 시장) 답사를 통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시각미술, 공공컨텐츠예술과 라디오 방송 위주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상대원시장프로젝트'의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상대원시장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개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 했습니다. 이 때 성남문화재단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부문의 특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공공시각예술+공공컨텐츠예술과 분리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공모 마감일까지 지원한 팀은 총9개 팀이었고, 면밀한 서류검토와 각 지원자에게 할당된 약 15분의 인터뷰 심사를 통해서 도시의 빛과색, 큰뜰마루, 비셀린프로젝트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이후 성남문화재단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은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협상 기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고, 이 때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프로젝트 명칭이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으로 정해졌고 간략명의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라 부르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공공시각예술

도시의빛과색  
대표 안성희

#### 공공컨텐츠예술

큰뜰마루  
대표 이상훈

#### 인터넷라디오 방송국

비셀린프로젝트  
대표 경상무



또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도시의빛과색, 큰뜰마루, 비셀린프로젝트가 기획·실행팀으로써 각각 공공시각미술, 공공컨텐츠예술,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문화를 통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상인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이 꼭 필요했습니다. 또한 상대원시장은 상인회 미비로 현재 미등록시장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정부의 재래시장 육성 정책에 따른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상인회 조직도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남시(진행자 임 진 주사)가 주관한 상인교육이 상대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원플라자에서는 상대원시장 상인 대상으로, 상대원3동 자치센터에서는 상대원 주민 자치회원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성남문화재단은 수차례의 기획·실행팀 통합 회의를 개최·진행해 성남문화재단 및 각 기획·실행팀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프로젝트 실행의 기초를 다져나갔습니다.

그 실행의 첫 단계로 온라인상에서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홈페이지(www.art-market.or.kr)를 구성해서 소통의 체계를 준비하고자 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이자, 프로젝트 팀의 거점공간인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을 구상하고 시장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송년행사

# 상대원시장, 그 공간을 다시 추억하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상대원 시장에서 상대원시장프로젝트의 마음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겸해 마을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성남문화재단은 상대원시장프로젝트의 작업 성과를 공유

하는 한편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대원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자는 뜻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이 행사는 인터넷라디오방송을 통해 덕담을 나누는 등 인터넷라디오 방송을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는 사진작가 이상주님의 사진전, 펠트소품 등의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표 | 인터넷라디오방송, 전시와 나눔 참조>

이와 함께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는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실행팀, 상대원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음식과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까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 < 인터넷 라디오 방송 >

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세부명	세부 내용	장소	담당	
3:00~	인터넷	1부	축하해요	오프닝 멘트	인터넷	총괄PD 정상무 진행박선영 기술우정인
				인사말 김국남 상인회장 지관근 시의원 유근주 시의원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음악과 내레이션		
3:30~	라디오	2부	단박 인터뷰	예술감독, 피디, 큐레이터, 참여작가 등 사업주관자 인터뷰+음악과 내레이션	오	
4:00~	넷	3부	상대원시장 상인, 주민 노래자랑	사전 신청을 받은 6명의 상대원 상인, 주민의 참여	방	
4:30~5:00	송	4부	2009년 새해 소망&덕담	늘봄 취재 '상인 인터뷰' 녹음방송+덕담나누기+음악, 내레이션	송	총괄PD 정상무 진행·기술 함께하는 주부모임
5:00~5:30	마무리		복조리요!	문화재단과 프로젝트 주관자들이 인사를 나누며 복조리를 각 점포에 선물	국	
5:30			폐회		시	총괄: 큰들마루

## < 신나는 상대원시장 송년회 >

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세부명	세부 내용	장소	담당
2:00 ~ 5:30	시장전	상대원시장의 어제와 오늘전	공모전사진전+상대원시장프로젝트 사진전+상대원풍경사진전	사랑방 · 원다방	큰들마루
		상대원시장 사람들전	즉석 디카 프린트 사진전		
		퀵트전	소프트웨어 결과물 전시		
	함께나눔	놀이공작전	소프트웨어 결과물 전시		
		음식나눔과 대화	사랑방·원다방 초청 주민과 상인 음식 나눔		
		풍선 선물 나누기	협주부 주관 풍선공작 선물		
	소식지: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상대원시장프로젝트 종합보고 소식지 배부			



◀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 디카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지역주민 및 시민들, 상인문 화재단 관계자들

▼ 상대원시장 상인의 김국남 회장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상인문화재단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 DJ 박선영(박복태)님이 노재천 본부장님에게 상대원시장 상인들에게 덕담 한마디 전달 것을 부탁합니다.  
◀ 박승현 상인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함께 하는 주부모임'의 회원들이 이날 나눠줄 풍선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멋진 메이크업에 시원시원하신 성격의 영동김어묵 이모님 - 영동김어묵

## 상대원시장 사람들 이야기



글·사진 이상주



상대원 시장 최고의 목정 - 목포수산



두분이 친구세요? 아니 저매자~ - 옥중천만남

삼촌 이따가 우리말 오면 사진 찍어줘 우리말 너무 이쁘거든 사진찍는내내 딸만 쳐다보신다. 눈에 넣어도 안아픈 딸. - 오백덕집



항상 친절책을 읽으시는 이모님 - 강남속세상



언제나 유쾌한 세친구 - 우리 손대국



삼겹살도 파세요?  
아니 아저씨 안팔아 그냥 반찬만.  
- 간육식당



항상 이쁘장하게 하고 나오시는 이모님들. - 시장파자



저거 좋은 밑밥이야 저거,  
좋은밑밥이 누추한곳에 있어가지고.  
- 원물건강원



너무나 금슬이 좋으신 두분  
- 쌍둥이 고추 기름



상대원 시장 가장오래된 가게  
오래전엔 미원을 대어 놓고  
팔아주면 깐편을  
달아 주었다한다.  
- 미원진 고추기름



- 광택요육



생선가게 - 해물상성



이쁘게 달아놓은 등을 누가 손댈까 되곤 하실때마다 저렇게 싸아 놓으신다  
- 예쁘디 좋합 화장품



30년만에 처음 생긴 간판.  
기념으로 간판 사진을 찍어 드리라고  
했더니 간판이 밝고 이쁘게 보이려고 등  
등 옮겨 비춰 주신다. - 무용기들



겨울대비 - 시장아재



사장님 웃으세요! 뭐? 이럴게?  
- 노침 권아들



무슨 비지가 두부보다 비싸요?  
그거야 파는 사람 마음이지! - 손두부마을

이쁘네요 손주신가봐요? 아나~ 허허허 말이야.  
네? 진짜요? 몇살에 보신건가요?  
말 그런걸 물어? 약속림게  
그래도 말슴해 주세요요~  
신동이야. 하하하  
- 진생떡집





복덕부 댁이다. - 유복옥집



동이 너무 이쁘고 맘에든다고  
동과 같은 표정을  
- 예쁘다 종합 화장품



저 자리에서 항상 저렇게 계신다.  
올겨울은 안추워야 할텐데. - 할머니야채



이모티콘과 너무나 뽀은 사장님  
- 이준아재  
- 이찬열직거래



아빠 저거 뭘대? 응? - 뽀디뽀

##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그 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지난 12월 29일 '신나는 상대원시장 송년회' 행사를 끝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는 킥트베움터 등이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라디오방송국'도 방송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 송년행사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라디오방송의 경우 함께하는주부모임(이하 합주부)에 의해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주부는 인터넷라디오방송국의 기획·실행팀인 바셀린프로젝트로부터 인터넷라디오방송의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합주부는 하루 2시간씩 방송을 지속하면서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인터넷라디오방송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정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 진행되었던 킥트베움터는 참여 주부들의 열띤 호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놀토공작 역시 지속 진행을 모색 중입니다.

이렇듯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공동체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프로젝트로서 언제까지나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인과 지역주민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008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진행 일지

- 1. 1-6.9 2008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기초 기획안 연구 및 행정 검토
- 6. 10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전문연구용역 계약(전문위원 김성호)
- 6. 10-20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 및 상대원시장 현장 분석 연구
- 6. 12-18 라디오프로그램 사례 취합 분석 및 현장 탐방 기획 연구 1-3차
- 6. 10-18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공공시각미술, 공공인쇄예술, 인터넷라디오)안 연구
- 6. 15-26 상대원시장프로젝트 홍보 기획(온라인 무료 홍보) 연구 및 실행
- 6. 18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 외부심사위원 선정
- 6. 23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안 최종 확정 및 공고
- 6. 23-7. 17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안 공고 및 신청 접수
- 6. 23-26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공모 기획안 보도 및 홍보
- 6. 24-31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회의 및 심층 연구
- 6. 27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 공모에 따른 성남문화재단의 제안요청 연구(기본제안+특별제안)
- 6. 31 공모기획안 수정 공고(공모설명회 공지 추가)
- 7. 1-23 프로젝트북 기획 연구 및 기획안 1-5차 모임
- 7. 4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공모 사업설명회,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를
- 7. 10 -7. 20 프로젝트북 작가 공모
- 7. 17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안 공모 마감
- 7. 17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안 공모 1차 서류심사(성남문화재단)
- 7. 19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7. 21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안 공모 2차 인터뷰심사(외부 전문위원)
- 7. 23 프로젝트북 작가 선정(자유기고자 정혜원)
- 7. 24 프로젝트 기획안 공모에 따른 심사 결과 발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시의빛과책, 바셀린프로젝트)
- 7.24-8.26 성남문화재단 프로젝트 기획팀 실행기획안 협상
- 8. 12 상대원시장프로젝트 상인 대상 사업 설명회(1차), 상대원플러자, 상대원3동 자치센터
- 8. 13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기획단 회의
- 8. 19, 21, 25, 27 상대원시장 상인교육(총4차)
- 8. 26 공공시각미술, 인터넷라디오방송 부문 프로젝트 기획팀 최종 계약
- 8. 30 공공인쇄예술 부문 프로젝트 기획팀 계약(큰돌마루)
- 8. 28 기획팀 통합회의
- 9.1-22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설치 및 기반조성
- 9. 2 상대원시장프로젝트 상인 대상 사업 설명회(2차)
- 9. 4 프로젝트 현장 홍보용 플래카드 5종 시장거리에서 설치
- 9. 4 프로젝트 리플렛, 포스터 완성
- 9. 4 인터넷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업체 계약
- 9. 6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기획단 회의
- 9. 5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오픈닝 행사, 1차 엘로우트몰리타시 퍼포먼스
- 9. 10 상대원시장프로젝트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상대원시장 라디오 액션, 한가위 큰 돌 놀이마당)
- 9. 17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인테리어
- 10. 3 엘로우트몰리타시 퍼포먼스 2차
- 10. 10-11. 20 상대원 사랑방 원대방 인테리어공사
- 9. 22 인터넷라디오방송 개시, 프로젝트팀 통합회의
- 9. 22-10.4 인터넷라디오 방송 1시즌
- 9. 29 '상대원 사랑방 원대방' 오픈닝 행사

- 10. 6-11. 1 인터넷라디오방송 2시즌 방송
- 10. 6-12. 19 줄마 DJ
- 10. 8-12. 19 어린이라디오스타
- 10. 10-12. 29 필트맥음터
- 10. 18-12. 27 늘도공작
- 10. 10 상대원시장 음악의 개척 관련 상인동역서 수렴
- 10. 10 도로포장과 차량막 친 교재 권 관련 상인동역서 수렴
- 10. 13-14 MBC TV 화제집중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촬영(인터넷라디오방송)
- 10. 15 MBC TV 화제집중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방영(인터넷라디오방송)
- 10. 21 인터넷라디오방송 스피커 설치 현황 작성
- 10. 22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기획단 전체 회의
- 10. 24 인터넷라디오방송 '노래들려주는 시장' 공개방송
- 10. 24 길거리 건강검진
- 10. 27 인터넷라디오방송 이양 작업 시작
- 10. 28 인터넷라디오방송 기획 회의
- 10. 29 상정조형물과 도로포장 시안 상인 투표
- 11. 1-30 인터넷라디오방송 3시즌 방송
- 11. 3 시민방송 알 TV 취재
- 11. 6 프로젝트 기획팀 전체회의
- 11. 6 아름방송 TV '행복플레이' 취재
- 11. 7 엘로우트몰리타시 퍼포먼스 3차
- 11. 8 늘도 공작
- 11. 14 골목길 환경개선 관련 상인동역서 수렴
- 11. 15 시장 속의 꼬마 시장, 어린이버룩시장
- 11. 15 길거리 건강검진
- 11. 20-27 동너머동 27점포 설치
- 11. 22 텍스트형 커뮤니티론 9점포 설치
- 11. 20-23 골목길 환경개선\_상명대팀
- 11. 26-27 아이큰형 커뮤니티론 22점포 설치
- 11. 24 골목길 환경개선\_경원대팀
- 11. 27 아름방송 TV '행복플레이' 방영
- 12. 1-19 인터넷라디오방송 4시즌 방송 & 방송 주관 이양 진행
- 12. 2 방송 이양팀 기술교육
- 12. 3-18 인터넷라디오방송 주관 이양 회의
- 12. 4 SBS TV 모닝와이드 3부 방영
- 12. 5 엘로우트몰리타시 퍼포먼스 4차
- 12. 14 상정조형물 나는 상대원 시장에 갑니다. 설치
- 12. 15-19 현 기획팀과 이양팀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 12. 18 도로 환경개선\_미끄럼 방지용 칼라복수포장
- 12. 16 상대원시장프로젝트 기획실행팀 전체회의
- 12. 19 홈페이지 관리자 및 관리자 명의 이전
- 12. 22 이양팀(함주부) 시험방송 개시
- 12. 22-2. 27 이양팀 시험방송
- 12. 25 신나는 상대원시장 송년회 보도 의뢰 및 홍보
- 12. 25 상대원 사랑방 원대방 전려 중앙 실행
- 12. 29 신나는 상대원시장 송년회 개최 및 프로젝트 마감
- 12. 30 프로젝트 주관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마감
- 2009.1 프로젝트북 출간
- 2009.1 이야기북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출간



## 언론에서 본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조선일보 2009년 2월 6일 금요일 자

### 거리 음악회... 주인 사연 담은 간판... 낭만을 입은 재래시장



- 시민들의 열린 문화공간 된 성남 상대원시장  
밤에는 가게마다 특색있는 등불 밝혀  
상인들이 직접 출연 라디오 방송도 인기

지난달 29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 삼거리.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가요 가락이 시장 전체를 감쌌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바위섬'... 귀에 익은 멜로디가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을 잡았다.

'행락신발' 주인 손웅일(51)씨, '시장괴자' 김연호(49)씨도 가게에서 얼굴을 내밀어 구경했다. 시장 바닥에서 이 감쪽 콘서트를 벌인 이들은 '늘푸른색소폰앙상블' 회원들. 김기택(49·성남 분당구 이매동)·정수자(여·52·이매동)씨 같은 성남의 일반 시민들이다.

상대원시장은 이처럼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재래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열린 문화공간' 이 됐다. 삼점마다 달린 스피커에선 음악과 '시장상인들의 사연' 이 흘러나와 재미를 더한다. 성남시 신하 성남문화재단이 작년 9월부터 진행해온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덕에 이렇게 변했다. '오복반찬' 이항희(여·40)씨는 "시장에 신나는 분위기가 날치면서 하루 매출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0% 늘었다"며 "최퇴하던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 상대원시장의 하루 방문 고객 수는 1800명이었지만, 이 프로젝트 시작 후 24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 상대원시장 삼거리에서 성남시민들로 구성된 '늘푸른색소폰앙상블'이 시장 상인과 손님들 앞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성남문화재단)

#### 음악·무용 공연이 있는 시장

작년 10월 24일 상대원시장에선 시민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먼저 시민 5명으로 이뤄진 여섯줄사랑이 기타를 치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요스모스 피어있는 길' 같은 추억의 포크송을 불렀다. 할머니·할아버지들로 이뤄진 '사른클럽'은 포크댄스로 흥을 돋웠다. 연주와 공연 중간중간 시민과 상인들이 나서 노래자랑도 펼쳤다. 올해는 성남 120개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연합모임인 사랑방문화클럽이 이 시장에서 공연을 활발히 벌일 예정이다. 이 모임 임기용 운영위원장은 " 야외공연 하기 좋은 5~10월에 4번 정도 공연할 계획"이라며 "개별 램이 잠깐 펼쳐는 감쪽 콘서트도 자주 갖겠다"고 했다.

#### 시장 라디오방송 '원다방'

라이브 공연이 없는 날도 상대원시장은 신난다. 이 시장만의 라디오방송이 상점들마다 걸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방송국 이름은 '원다방'. 예전 시장에 있던 유명 다방에서 이름을 따.

이름 그대로 방송은 상인들 신청곡과 사연들로 꾸며진다. 특히 라디오 드라마는 이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상인들이 직접 연기하기에 인기가 높다. 작년 10월 31일 방송했던 '속웃가게 삼촌'은 성남에 공단이 있었던 1970년대에 여직공을 짝사랑했던 속웃가게 총각을 그렸다. 여직공 역엔 '시장피자' 주인 이성경(47)씨가 출연했다. 이어 12월엔 '대왕술집집비' 앞에서 호떡을 팔던 성남서고등학교 3학년 김관우·이홍주군이 '백만불짜리 우정'이란 드라마를 출연했다.

상인들이 방송에서 편지를 읽는 코너도 화제다. '영동건어물' 김순옥(여·46)씨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방송으로 표현했다. 김씨 남편이 코에 생긴 종양으로 서울아산병원으로 매일 통원치료 다니는데, 남편이 때면 차로 데려다 줘 고맙다고 했다. '쌍둥이기름고추' 박현수(63)씨는 "장을 보던 손님들이 라디오로 상인들 사연을 듣고 가게를 찾아오기도 한다"며 "라디오방송을 통해 상인과 손님 사이에 정과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색 있는 등불엔 낭만이

상대원시장의 밤은 낮보다 낭만적이다. 상점마다 특색 있는 등불이 빛을 밝힌다. '해물생선'은 전구를 생선모양 아크릴로 둘러싸 생선가게 분위기를 냈다. '에브리종합화장품' 역시 전구에 사람 얼굴 표정을 그려가게 이미지를 살렸다.

가게 간판들에도 사연이 있다. 박정미(여·45)씨가 운영하는 '시장야채' 간판엔 '쉽게 포기하는 젊음을 보면 안타까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남편 사업 부도로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담았다고 한다. '할머니야채' 가게 간판의 '내가 배운 것은 장사밖에 없어'라는 문구엔 30년간 성실히 야채가게를 해온 할머니 삶이 담겼다. 이 간판들은 공공디자인어너 정선주(여·32)씨가 가게마다 3시간 이상 인터뷰해 들은 사연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이다.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문화기획부장은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성남의 나머지 11개 재래시장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기자 [promejun@chosun.com](mailto:promejun@chosun.com)

2008년 10월 15일(수), MBC 생방송 화제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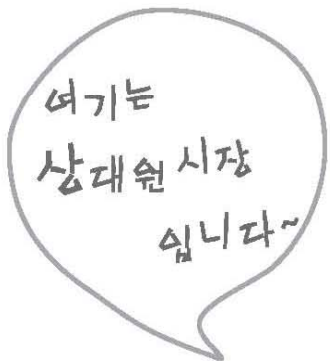
시장에서 라디오 방송을 한다?  
 요즘 이것 때문에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상점마다 스피커들도 있죠?  
 바로 시장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시작한지 갓 한 달 된 시장 라디오는 요즘 상인들에겐 엄청난 관심사.  
 날이 갈수록 자체 청취율 쑥쑥 올라가고, 주민들까지 라디오 소리에 시장에 발걸음을 한답니다.  
 라디오방송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과 지역문화재단 예술팀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  
 요일별로 스텝들이 도와주고, 상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네요.  
 상인들은 라디오를 통해 제품 홍보도 하고,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해서 들을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인데요. 풍택 신발 맞죠? 사장님 지금 뭐하세요?"  
 "저요? 신발 팔고 있어요"  
 "혹시 오늘 새로 들어온 신발이나 오늘 이 신발을 추천한다.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구두 말고 운동화 놓은거 있어요"  
 "뽕급같은 운동화? 혹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인가요?"  
 "한 2만 7~8천원 거요"  
 "2만 7천원 정도? 혹시 깎아주시나요?"  
 "이혼 아줌마들은 조금씩 깎아주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오늘은 바로! 드라마 시간!  
 이것 역시 상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박집 총각 상수씨는 어젯밤. 밤잠을 못 이뤘다네요.  
 오늘의 주제는 15년 만에 첫사랑을 만난 두 남녀!  
 첫 드라마에 데뷔하는 상수씨, 내면의 연기를 잘 해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핼러는 특소리로 연기를 마친 우리 박집 총각!  
 씩스럽지만 이웃들 정전세끼 쏟아집니다. 일약 스타로 발돋움 할 것 같죠?

'인문에서 본 상대원시장' 은 기사화, 방송된 원문을 그대로 실었으며, 이외 시민방송 알 TV (11월 3일), 아름방송 TV '행복릴레이' (11월 6일), 아름방송 TV '행복릴레이' (11월 27일), SBS TV 모닝와이드 (12월 4일) 등 상대원시장프로젝트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 연락처



**민당약국** '민당약국=상대원시장입구' 를 상징할 정도로 상대원시장의 간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노침건어물** 각종 건어물과 함께 음악 테이프를 판매합니다.

**민당축산물직판장** 소고기, 돼지고기를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 판매합니다. 743-4298

**오복떡집** 지난 30년간 남보다 더 부지런히 떡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735-9401, 734-5481

**시장야채** 퇴근 시 시장에 들러 잠을 보는 취업주부들을 위해 깔끔하게 손질된 야채만을 판매합니다. 011-239-6911

**할머니야채** 지난 30년간 줄곧 상대원시장에서 야채를 판매해 왔습니다.

**정가네손만두(하안분식)** 손으로 만드는 만두와 홍두깨로 직접 밀어 만드는 칼국수는 이 집의 자랑입니다. 742-1214

**명인만두** 지난 30년 간 한결 같은 음식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747-0380

**평택신발** 작은 아기신발부터 동네할아버지가 즐겨 찾는 하안 고무신, 장화, 등산화, 구두 등 온갖 신발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복반찬** 김치, 밑반찬 등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747-9352

**죽석오델** 직접 만든 따뜻한 오델을 매장에서 맛보거나 포장해 갈 수 있습니다. 735-5050

**합동슈즈타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을 수 있는 모든 신발이 갖추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747-6654

**농심청과(과일백화점)** 고소한 김 냄새와 향긋한 과일 냄새가 발길을 잡아 끄는 곳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호떡도 맛 볼 수 있습니다. 743-7703

**남북정육점** 생고기 뿐만 아니라 양념한 소고기, 돼지고기도 판매 중입니다. 742-1560

**대왕참숯갈비** 산지에서 공수한 생고기를 숯불에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천쌀직거래(이천야채)** 쌀과 야채를 판매합니다. 748-7504, 746-4529

**목포수산**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집의 대표 판매상품은 생선입니다. 744-7442

**손두부마을** 직접 만든 따뜻한 손두부외에 청국장, 김, 묵, 장아찌 등 입맛을 돋굴 반찬도 판매합니다. 011-9753-5053

**육쌈냉면** 처음에는 매운맛의 비빔냉면으로 먹다가 시원한 물냉면으로 바꿔 즐기는 '육쌈냉면' 을 즐길 수 있습니다. 735-6392

**특종천만낭** 각종 생활, 팬시용품 및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741-7862

**미래분식** 다양한 분식은 물론 팔죽, 팔칼국수 등을 맛 볼 수 있습니다. 735-2536

**에쁘다종합화장품** 화장품과 함께 간단한 미용도구도 함께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748-6371, 742-8051

**즐거찾기** 의류를 파는 상점 016-491-8479

**진성떡집** 단순히 떡만을 판매하지 않고 방앗간도 겸하고 있습니다. 747-2333

**양념속세상** 각종 한약재를 다린 물에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해 양념된 돼지갈비, 소불고기, 닭갈비, 고추장돼지불고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749-1352

**민음건강원** 각종 약재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루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741-1797

**영동건어물** 각종 건어물과 함께 건과류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로 코다리를 선풍기에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41-1797

**현대직판장·쇼핑센터** 대형쇼핑센터 못지 않은 상품

구색을 갖춘 대형슈퍼마켓입니다. 747-6161

**현대이슬렛** 가구 등 각종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731-9669

**평택모독** 전문경영인(?) 남편과 한복디자이너인 아내가 운영하는 부부 한복집입니다. 734-3451

**옛날생삼김밥** 된장, 고기 맛, 김치맛 이렇게 3가지로 지난 7년간 단골손님 확보 이상무. 734-3524

**상대원작업복** 016-399-7417

**부흥기물** 웬만한 생활용품은 여기 다 있는 집으로 부흥상회의 동생집입니다. 742-4171

**춘천기름**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씻고 말려서 빵아 만드는 고춧가루와 기름은 이 집의 자랑입니다. 742-1162

**쌍둥이기름고추** 말 그대로 고춧가루와 각종 식용 기름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734-9968, 010-4166-9492

**부흥상회** 웬만한 생활용품은 여기 다 있는 집으로 부흥기물의 형님집입니다. 742-1881

**시장피자** 피자는 물론이고 닭튀김, 콜라, 호떡 등의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743-4747, 744-6022

**원이동복** 아이옷을 파는 상점입니다. 748-9645

**펜시아이슬렛** 액세서리 등 패션 잡화류와 함께 여학생들이 좋아할만한 팬시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747-8471

**유진홍수** 한복을 맞추러 온 손님 한 분 한 분의 치수를 직접 재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 특징이나 나이까지 반영해 한복을 만들어 드립니다. 747-7901

**대원떡방앗간** 지난 30년간 줄곧 상대원시장에서 방앗간 일을 해 온 상대원시장의 터줏대감입니다.